

전략연구 2014-3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김양중·박정환

발간사

충남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충남의 경제규모는 세종시 포함 17개 시도 중 3위이며, 2015년에는 지역내 총생산이 1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충남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충남이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는 분명 충남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 기뻐하기보다는 지금부터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의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간다면 기회는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 자동차부품 기초생태계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며, 본 연구가 충남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견실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경제연구부의 김양중 박사와 본 보고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많은 도움과 수고를 해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2월 28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충남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4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농축산 바이오, 첨단문화)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분석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본 연구는 충남의 산업 생태계분석을 위한 기저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음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통계

〈표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통계

총사업체	567개
충남 광·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5.2%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대비	12.7%
종사자규모	29,478명

자료: 사업체조사(2012), 경제총조사(2010)

- 충남에는 2012년 기준 총 567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소재
- 충남의 자동차산업이 충남의 광·제조업 전체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이며, 이중 자동차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 충남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이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나타남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전국대비 비율 12.78%)
-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은 경기, 경북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3. 연구의 자료 및 주요내용

-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①통계자료와 ②설문조사자료로 구분
- 기초적인 통계분석은 ‘전국사업체조사(2012)’와 ‘경제총조사(2010)’를 활용하였으며, 산업간 연계구조는 ‘지역산업연관표(2005)’를 활용
-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조사된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자료를 활용
-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충남 내 567개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이며, 지역별 적절한 층화를 통해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을 조사
 - 표본은 지역별로 랜덤추출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방법을 활용

〈표 2〉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표본설계

구 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 567업체
표본크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 300업체
표본추출방법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역별 층화 추출

- 본 연구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초생태계를 다루는 만큼 충남 산업을 쉽게 조명해볼 수 있는 8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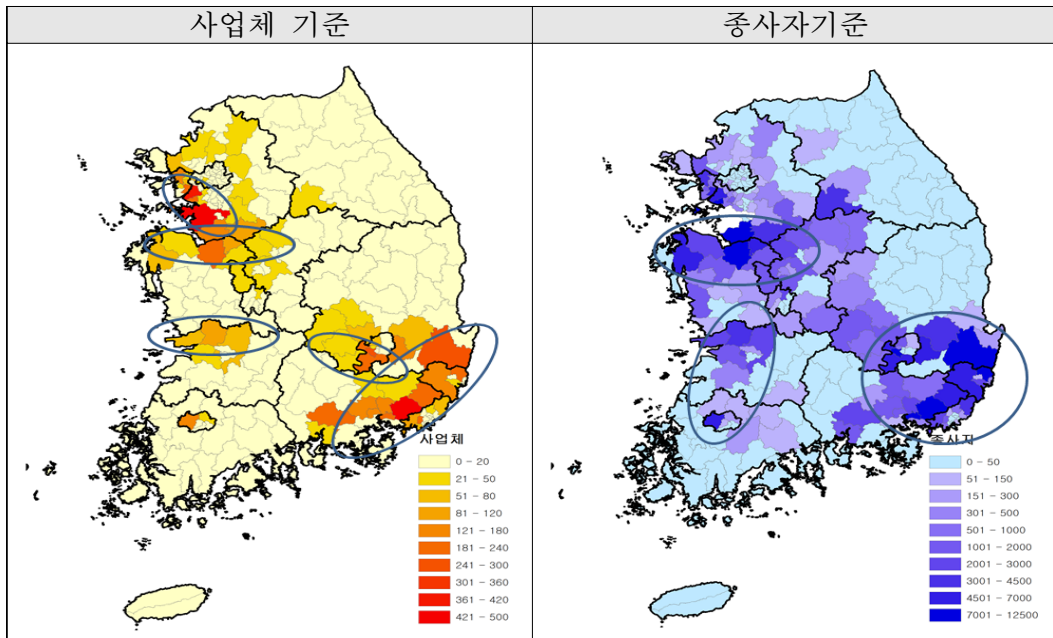
〈표 3〉 연구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활용자료
생태계 분포	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분포지도 작성	통계자료 및 GIS
생태계 현황	②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③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산업 파악	
	④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	
	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분석	
	⑥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설문조사 자료
	⑦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분석	
생태계 인식	⑧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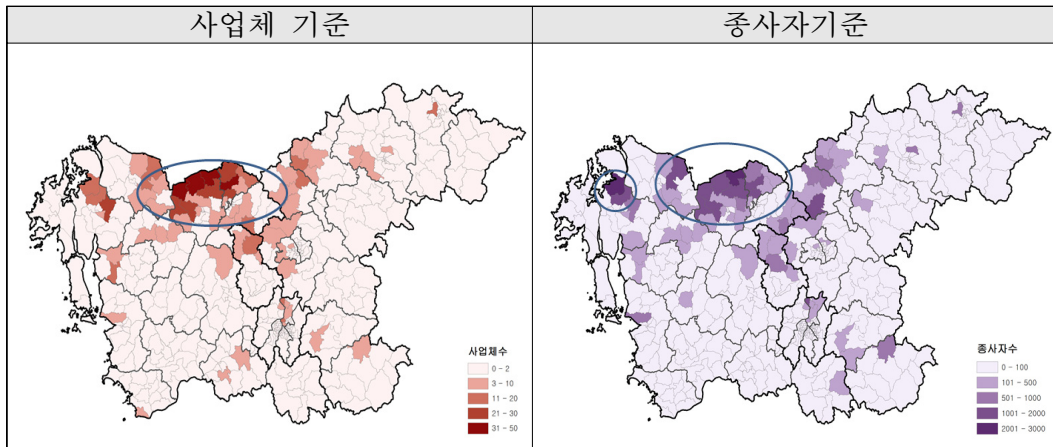
1)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그림 1〕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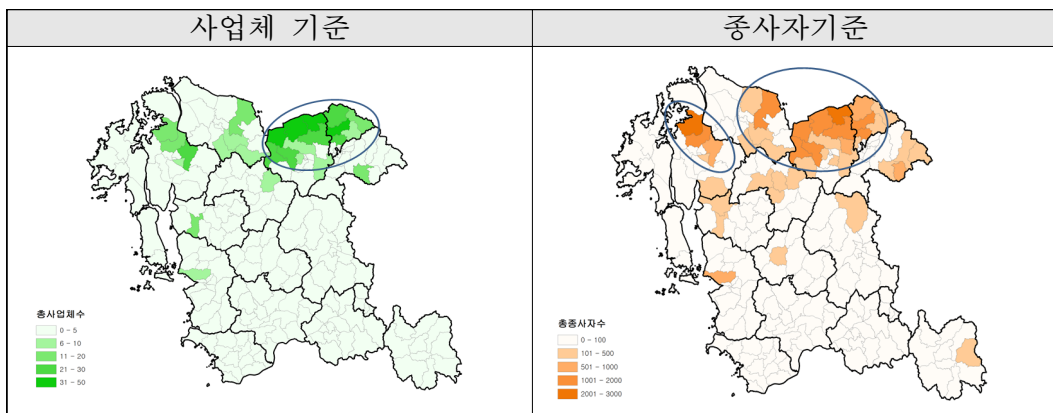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남서부와 충남 북부 그리고 영남 내륙 대구광역시 주변 및 남동해안 지역으로 두 권역으로 분산되어 집중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전북 북부와 광주광역시 서부, 충북 북부에 편재된 양상

〔그림 2〕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 충청권으로 살펴보면 충청 지방의 주요 핵심지역은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와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직산읍) 일대의 비중이 높고, 충남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를 중심으로 광역화된 양상

〔그림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와 천안시 서북구(직산읍, 성환읍) 일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고, 서산·당진까지 넓게 분포된 양상

⇒ 지역적으로 볼 때 자동차부품산업은 경기·충청권, 대구경상권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에 있어, 충남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기, 충북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

⇒ 특히 충남이 전기장치관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북과의 연계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력과 기반시설, 수출기반 여건이 좋은 아산,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부품기업의 유치에도 유리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결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1,000억이 투입된다면¹⁾ 그로인한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유발액은 2,324억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572억, 수입유발액은 158억, 취업유발인원은 1,178명으로 나타남

〔그림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투자 시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1) 실질적으로는 1,000억 생산유발이 일어난 것을 의미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울산, 경북, 경남, 인천, 대구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또한 전산업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전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경북, 울산,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충남 지역경제만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울산까지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그만큼 충남이 타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 ⇒ 특히 경기도의 경우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향후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함 있어 충남과 경쟁관계 구도보다는 연계·협력 구도로 끌어가는 것이 두 지역이 윈-윈(win-win)하는 길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78개 부문으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은 철강1차제품, 플라스틱제품, 선철 및 조강, 석유제품, 금속제품, 전기 기계 및 장치,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철강1차제품²⁾, 전남의 철강1차제품,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선철 및 조강³⁾, 충남의 철강1차제품이 주요 후방산업
- 또한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수리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서비스⁴⁾, 도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⁵⁾으로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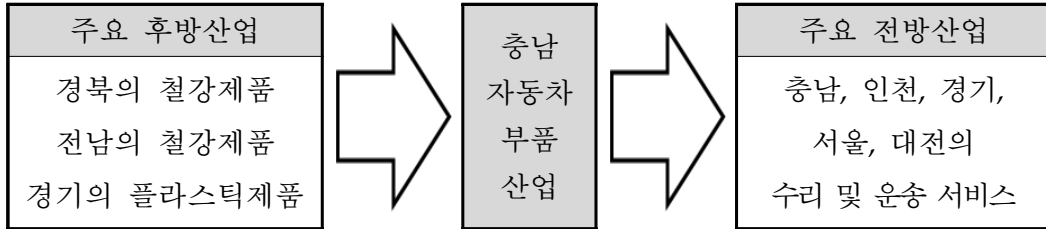
2) 철강1차제품은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주단강품, 기타 철강1차제품으로 구분

3) 선철 및 조강은 선철, 합금철, 조강으로 구분

4) 기타서비스는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로 구분

-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대전, 서울의 기타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

〔그림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부문으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후방산업은 플라스틱제품, 열간압연강재, 조강, 석유화학기초제품, 기타금속제품,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경북의 열간압연강재, 충남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열간압연강재, 경북의 조강 등이 주요 후방산업
 -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방산업은 수리서비스, 택배, 도로운송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서울, 대전의 수리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
-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은 철강 및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 전기기계 및 장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경북, 전남의 철강산업, 경기의 플라스틱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며, 아울러 서울, 대전, 경기, 인천 등 인근 대도시의 자동차수리서비스와 택배 등 육상운송 서비스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

⇒ 충남은 철강 및 금속분야에서는 전남과,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경기와 연계·협력하여 R&D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의 자동차 수리업과 운송서비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충남을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집적도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3.3) 다음 순이며, 그 차이가 0.1에 불과
- 자동차부품산업을 부품 영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에서 입지계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음

⇒ 특히 충남은 모든 세부 부품영역에서 모두 3위권에 드는 유일한 시도로서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는 상당한 수준에 있음(김양중, 2014).

〈표 4〉 시도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계수 순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동차부품 산업							1					2			3	
자동차 엔진용 부품								1				3				2
자동차 차체용 부품							1					3			2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					1				2
자동차용 전기장치											1	3			2	
기타 자동차 부품							3					1				2

⇒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세부 영역별로 2006년과 2012년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이 충남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충남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하여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 산업이었으며, 자동차용 전기장치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충남의 4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해온 충남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남 TP 자동차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음(김양중, 2014)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도급구조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1차벤더가 19.6%, 2차벤더가 50.3%, 3차벤더가 30.1%로 2차벤더 중심의 산업구조

- 하청기업이 발주기업과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납품단가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품기일촉박(27.6%), 대금결제 장기화(20.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낮은 납품단가는 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력사업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한 개선이 필요

〈표 5〉 발주기업과 하청기업 간 지원 미스매칭

구분	받고 있는 지원	받고 싶은 지원	미스매칭 여부	지원방향
자금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정보제공	높음	낮음	미스매칭	지원축소
인력, 교육지원	높음	높음	매칭	지원유지
기술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마케팅 지원	높음	낮음	미스매칭	지원축소
생산관리 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장비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이 발주기업으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지원으로는 정보제공이 33.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지원(22.9%), 인력, 교육지원(17.3%) 순
- 그러나 발주기업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지원으로는 자금지원이 21.6%로 가장 많았고, 생산관리 지원(21.1%), 장비지원(18.4%) 순

⇒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자금지원, 장비지원, 생산관리지원, 기술지원의 경우 충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충남 내에 69.9%를 납품하고 있으며, 경기(17.1%), 울산(2.4%)순

- 아울러 충남 내에서 50.7%를 조달받고 있으며, 경기(27.2%), 충북(6.4%)순
- 지역 내에서는 아산, 천안, 서산, 당진에서 납품 및 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6〉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납품 및 조달비중

(단위: %, 억)

시도	납품		조달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서울	0.3	714	0.6	431
경기	17.1	36,091	27.2	20,130
인천	1.0	2,141	3.0	2,234
대구	0.5	1,071	1.5	1,111
부산	0.5	1,136	0.5	340
광주	0.8	1,655	0.7	522
울산	2.4	5,126	1.1	805
대전	1.4	2,952	2.0	1,497
충남	69.9	147,899	50.7	37,464
충북	1.7	3,699	6.4	4,729
경남	0.4	844	1.0	726
경북	1.4	3,050	2.2	1,656
전남	0.2	422	0.3	249
전북	1.5	3,115	2.1	1,520
강원	0.4	844	0.4	272
세종	0.4	779	0.3	249
계	100	211,534	100	73,934

주: 납품 및 조달금액은 설문조사 추정 값임

- 대부분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직접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완성차업체와의 접근성, 지역 및 주변 연관 산업의 발달, 수도권과의 접근성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업에서 충남 인근지역인 경기, 대전, 충북, 세종, 전북과 자동차 부품산업간 연계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계협력 우선지역으로는 충북,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충북, 세종 두 지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볼 수 있어 충남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충남이 울산, 경북, 경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발전전략 수립이 필요

7)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판매구조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매출액 중 내수의 비중이 92.9%로 나타났고, 수출은 7.1%에 불과
 - 자동차부품전문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수출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 비중은 현대가 46.2%로 가장 높았고, 기아 (26.7%)가 다음 순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아의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있음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고, 자체 시장 판매의 비율도 3.8%에 불과
-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 종속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장판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데, 시장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자체브랜드의 개발 임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중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7.5%에 불과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정책이 필요

⇒ 자동차부품기업이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 안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 향후 충남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기술 트렌드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45.1%가 고연비(연비 개선 기술)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친환경(신에너지 동력 및 인프라)이라고 응답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유가가 급등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연비, 경량화를 미래 신기술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친환경도 주요한 미래 트렌드로 인식

〈표 7〉 미래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단위: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환경	0.6	9.8	39.3	48.8	1.5
지능형	0.3	10.4	37.7	50.3	1.2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0.3%가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개발에 정보수집, 기술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 분야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1.5%가 정보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분야로는 36.8%의 기업이 가솔린하이브리드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능형 자동차분야로는 44.8%의 기업이 지능제어(자동충돌회피)라고 응답

⇒ 많은 기업에서 향후 육성해야하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분야로는 지능제어 시스템(자동충돌회피)을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운전자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주차도 향후 지속적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견실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9.3%의 기업이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사업 강화(26.4%), 부품개발을 위한 부품업체간 파트너십 강화(24.4%)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남은 ‘충남 TP 자동차센터’를 중심으로 장비지원 등 기업의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다루면서도, 타시도와의 비교를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예산상의 문제로 충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통계 데이터 분석의 경우도 시간상의 문제로 타 시도까지는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
- 보다 세부적인 생태계의 모습은 다양한 연구주제와 함께 다음 연구로 남겨둠

5. 요약 및 시사점

- ①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는 모든 부품분야에서 3위안에 들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는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 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육성이 필요
- ② 충남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기, 충북과의 연계 협력 사업이 필요
 - 대부분의 기업에서 충남 인근지역인 경기, 대전, 충북, 세종, 전북과 자동차 부품산업간 연계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계협력 우선지역으로는 충북,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남
- ③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충남 지역경제만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울산까지 그 파급효과가 나타남
 - 충남은 철강 및 금속분야에서는 전남과,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경기와 연계 · 협력하여 R&D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의 자동차 수리업과 운송서비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충남을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

- ④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2차벤더 중심의 산업구조이며, 발주기업과 하청기업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자금지원, 장비지원, 생산관리지원, 기술지원의 경우 충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형성이 필요
- ⑥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매출액 중 내수의 비중이 92.9%로 나타났고, 수출은 7.1%에 불과하여 자동차부품전문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수출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 ⑦ 충남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
 - 따라서 충남의 부품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 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에 노력해야 함
- ⑧ 친환경자동차와 지능형 자동차 분야 등 미래 자동차분야에 대해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은 ‘충남 TP 자동차센터’를 중심으로 장비지원 등 기업의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 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목 차

i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공급구조 분석	50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56
1) 납품 및 조달구조	56
2) 집적의 필요성과 영향	59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64
제5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69
1.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69
2. 대체자동차부품시장 전망	7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77
1.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및 시사점	77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의 시사점	78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의 시사점	79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집적도의 시사점	81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공급구조의 시사점	82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의 시사점	83
7.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판매구조의 시사점	84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의 시사점	85
[참고문헌]	87
[부 록] 설문지	88

표 목 차

<표 1> 충남의 자동차산업 사업체수	1
<표 2> 충남 광·제조업 대비 충남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2
<표 3>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대비 충남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2
<표 4>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대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부가가치 비중	2
<표 5>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 규모	3
<표 6> 부품 분야별 종사자수	4
<표 7> 자동차부품산업의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	4
<표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표본설계	8
<표 9>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조사방법	8
<표 10> 자동차부품 기능별 분류	9
<표 11> 연구의 주요내용	10
<표 1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11
<표 13> 전후방산업 분석	12
<표 14> 자동차부품산업 산업연관효과	38
<표 15> 1,000억 투자 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유발액	39
<표 16>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	41
<표 17> 충남 자동차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상위 30개)	43
<표 18> 충남 자동차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44
<표 19>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상위 30개)	45
<표 2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46
<표 21> 시도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계수	47
<표 22> 변이할당 분석결과	48
<표 2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유형	49
<표 2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50
<표 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관계	50
<표 26> 발주기업과 거래시 애로사항	51
<표 27> 과거 3년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 변화	52
<표 28> 향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 전망	52
<표 29> 발주기업으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지원	53
<표 30> 발주기업으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53
<표 31> 생산제품의 납품가격 결정기준	54
<표 32> 완성차업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만족도	54
<표 33> 지자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만족도	55

<표 34>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납품비중 및 납품액	56
<표 35>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군별 납품비중 및 납품액	57
<표 36>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조달비중 및 조달액	58
<표 37>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군별 조달비중 및 지불액	59
<표 38>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의 필요성	60
<표 39> 집적이 강화될 경우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60
<표 4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수준 전망	61
<표 41> 집적수준이 높아진다고 전망한 이유	61
<표 42> 집적수준이 낮아진다고 전망한 이유	62
<표 43> 인근지역 자동차부품산업간 연계발전전략의 필요성	62
<표 44> 충남과 연계협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	63
<표 45> 총매출액 중 내수와 수출비중	64
<표 46> 내수 중 시장판매 비중	64
<표 47>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자체브랜드 소유여부	65
<표 48> 국내 완성차업체 납품 비중	66
<표 49>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주요수출지역	67
<표 50> 한·중 FTA가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67
<표 51> 충남이 육성해야 할 신기술 트렌드	69
<표 52>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70
<표 53>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	71
<표 54> 미래 지능형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71
<표 55> 가장 육성해야 하는 지능형 자동차 분야	72
<표 56>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72
<표 57> 대체부품시장 전망	73
<표 58> 대체부품생산시설 투자계획	74
<표 59> 대체부품생산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필요성	75
<표 6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80
<표 61> 시도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계수 순위	81
<표 62> 발주기업과 하청기업 간 지원 미스매칭	82
<표 63>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납품 및 조달비중	83
<표 64> 미래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85

그림 목 차

[그림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종사자 증가추이	5
[그림 2] 총 사업체	14
[그림 3] 엔진용 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15
[그림 4] 차체용 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15
[그림 5]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사업체기준)	16
[그림 6] 전기장치 제조업(사업체기준)	16
[그림 7] 기타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17
[그림 8] 총 종사자	17
[그림 9] 엔진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18
[그림 10] 차체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18
[그림 11]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	19
[그림 12] 전기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	19
[그림 13] 기타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20
[그림 14] 총 사업체	21
[그림 15] 엔진용 부품 제조업	21
[그림 16] 차체용 부품 제조업	22
[그림 17]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2
[그림 18] 전기장치 제조업	23
[그림 19] 기타부품 제조업	24
[그림 20] 총 종사자	24
[그림 21] 엔진용 부품 제조업	25
[그림 22]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
[그림 23]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6
[그림 24] 전기장치 제조업	27
[그림 25] 기타부품 제조업	28
[그림 26] 총 사업체	29
[그림 27] 엔진용 부품 제조업	29

[그림 28]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
[그림 29]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
[그림 30] 전기장치 제조업	31
[그림 31] 기타부품 제조업	31
[그림 32] 총 종사자	32
[그림 33] 엔진용 부품 제조업	33
[그림 34] 차체용 부품 제조업	33
[그림 35]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4
[그림 36] 전기장치 제조업	34
[그림 37] 기타부품 제조업	35
[그림 38]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7
[그림 39]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	40
[그림 40] 시도별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40
[그림 41]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77
[그림 4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투자 시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7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남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은 1996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지역내에 입지한 이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지역내 주력업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주현식, 2014).

〈표 1〉 충남의 자동차산업 사업체수

(단위: %)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율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	5	0.8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	8.2
자동차 부품제조업	567	91.0
계	623	1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2

충남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4대 전략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다. 충남에는 2012년 기준 총 567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표 2〉 충남 광·제조업 대비 충남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충남 자동차산업 (부품포함)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충남 광·제조업
비율	10.0	5.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 총조사 2010

충남의 자동차산업이 충남의 광·제조업 전체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이며, 이중 자동차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나타났다.

〈표 3〉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대비 충남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충남 자동차산업(부품포함)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부품포함)
비율	15.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 총조사 2010

〈표 4〉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대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비율	12.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 총조사 2010

충남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3%이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나타났다.

〈표 5〉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시도별	종사자수	비중
서 울	884	0.38
부 산	10,045	4.36
대 구	17,894	7.76
인 천	12,764	5.54
광 주	6,091	2.64
대 전	2,676	1.16
울 산	18,256	7.92
세 종	1,229	0.53
경 기	49,631	21.52
강 원	3,888	1.69
충 북	8,783	3.81
충 남	29,478	12.78
전 북	9,973	4.33
전 남	668	0.29
경 북	25,941	11.25
전 국	230,578	10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전국대비 비율 12.78%)이며, 종사자수 기준으로 충남은 경기, 경북과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사자수 기준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이 충남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7%이며, 기타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자동차 차제용 부품,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 엔진용 부품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다.

〈표 6〉 부품 분야별 종사자수

(단위: 명, %)

	종사자수	%
자동차부품 산업	29,478	3.97
자동차 엔진용 부품	3,925	0.53
자동차 차체용 부품	7,244	0.98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6,526	0.88
자동차용 전기장치	1,469	0.20
기타 자동차 부품	10,314	1.39
전산업	742,046	100.0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2

〈표 7〉 자동차부품산업의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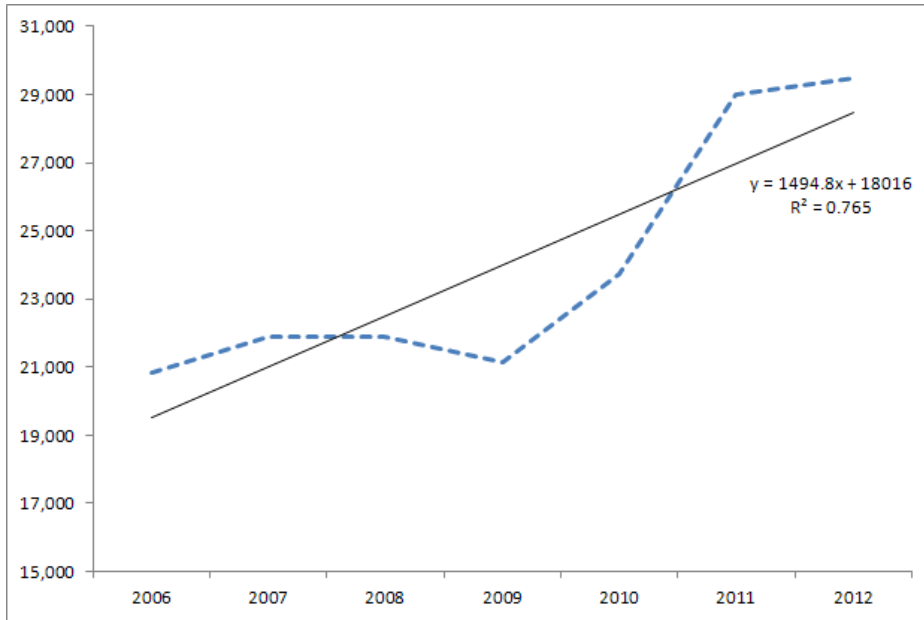
	2006	2012	연평균증가율	증가율순위
서울	3,450	884	-20.30	15
부산	8,524	10,045	2.77	10
대구	16,519	17,894	1.34	12
인천	11,842	12,764	1.26	13
광주	4,548	6,091	4.99	7
대전	1,992	2,676	5.04	6
울산	13,385	18,256	5.31	5
세종	-	1,229	-	-
경기	41,036	49,631	3.22	8
강원	3,363	3,888	2.45	11
충북	5,080	8,783	9.55	1
충남	20,857	29,478	5.94	3
전북	7,044	9,973	5.97	2
전남	651	668	0.43	14
경북	18,440	25,941	5.85	4
경남	27,297	32,377	2.89	9
제주	-	-	-	-
전국	184,028	230,578	3.83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06~201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은 충북과 전북에 이어 전국 3위이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은 5.94%로 충북 9.55%, 전북 5.97% 다음 순이었다.

〔그림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종사자 증가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2012

이처럼 자동차부품 분야는 충남의 성장동력으로써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분석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충남은 자동차부품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같은 시기에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에서 타시도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충남 및 인근 시도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협력분야와 특화분야를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충남의 산업 생태계분석을 위한 기저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충남이 자동차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충남 자동차산업 생태계분석과 관련된 보고서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서 작성된 ‘충남 산업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분석(2012)’보고서가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충남지역경제 개황과 충남지역경제 특징을 살펴보고, 4장과 5장에서는 충남 산업생태계 현황과 충남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6장과 7장에서는 자동차산업 현황과 자동차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8장에서는 혁신기관 현황, 9장에서는 연관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주로 6장과 7장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자동차생산현황, 매출추이, 업체수, 수출입실적, 종사자수, 성장률, 입지계수 등을 다루고 있다. 활용자료로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08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트레일러업의 지역별 생산액 점유율은 울산 지역이 23.9%, 경기 21.6%, 충남 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부품 전국대비 수출액 비중은 울산(18.7%), 경기(14.5%), 경남(13.5%), 경북(11.3%), 충남(10.2%)순이며 수입액 비중은 서울(20.1%), 경기(18.1%), 울산(16.2%), 경남(7.4%), 충남(6.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순으로 전국 3위(전국사업체 조사, 2009), 출하액 기준으로는 전국 2위(광공업 조사, 2009)를 기록하여 충남은 경기, 경남 다음 순이었다.

기아자동차화성공장, 현대자동차아산공장, 현대상용차전주공장, 한국 GM군산 공장에서는 승용차, 버스, 상용차 및 트럭 등 전차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충남은

이들 공장으로부터 반경 100km이내에 위치하여 자동차부품산업의 최적지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중심으로 관련업체들이 천안·아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당진·홍성·보령지역과 서해안 하이웨이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동북아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지이며, 지역 내에 완성차업체, 부품업체와 함께, 충남TP 자동차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와 대학 등의 혁신자원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이 의미가 있을지라도, 데이터의 특성상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충남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충남 자동차 생태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충남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발전방안(2014)’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소기업 비중이 낮고, 생산공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범용부품업체 비중이 높고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이 충남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생산수준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낮고 연구개발투자가 부족한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며, 국내 완성차업체의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라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친환경자동차 및 차량의 지능화 추세가 확산되고, 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FTA 확장 등 자동차부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부품수요가 늘어나고 부품업체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FTA 체결국에 대한 부품공급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동차부품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형성 촉진,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R&D지원강화, 고부가가치부품의 생산비중 확대, 자동차부품전문 수출기업 육성 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자동차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발전방안에 초점을 두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를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제2장 연구의 자료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적인 통계분석은 ‘전국사업체조사(2012)’와 ‘경제총조사(2010)’를 활용하였으며, 산업간 연계구조는 ‘지역산업연관표(2005)’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리서치 센터’에 의뢰하여 조사된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충남 내 567개 자동차부품산업 영위 기업이며, 지역별 적절한 층화를 통해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지역별로 랜덤추출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표본설계

구 분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 567업체
표본크기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영위기업 300업체
표본추출방법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역별 층화 추출

〈표 9〉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조사방법

조사 방법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자동차부품을 9대 분야별 구분하였으며,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10〉 자동차부품 기능별 분류

구 분		주요부품
바디	판넬, 프라임	플로어, 루프, 사이드, 백판넬, 크로스, 사이드멤버
	도어	도어프레임, 도어록, 윈도우레귤레이터, 도어트림
	범퍼	프론트 범퍼, 리어범퍼
동력 발생 장치	엔진본체	실린더헤드/블록, 피스톤, 크랭크샤프트, 커넥팅로드, 캠샤프트,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벨로우즈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컨덴서, 팬모드, 팬쉬라우드
	연료장치	연료탱크, 연료펌프, 워터펌프(냉각장치)
	윤활장치	오일펌프, 오일팬, 오일필터
	흡배기장치	에어필터, 흡배기매니폴드, 소음기, 배기파이프, 촉매컨버터, 트로틀바디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	클러치부스터, 커버, 디스크, 마스트실린더, 페달
	트랜스미션	변속기어셈블리, 기어, 샤프트, T/M오일펌프
	엑슬	프론트엑슬, 기어엑슬
	기어류	엔진기어, T/M기어, 엑슬기어
제동 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어셈블리, 브레이크부스터
	브레이크 부품	디스크, 드럼, 허브, 라이닝, 패드, 실린더
현가 장치	속압쇼바	속압쇼바
	스태빌라이저	크로스, 사이드멤버, 스프링, 서스펜션, 스태빌라이저바
조향 장치	스티어링	스티어링기어, 칼럼&샤, 스티어링너클, 스티어링 휠
의장	카펃모듈	크래쉬패드, 미터, 스위치, A/V, 네비게이션, 히터, 에어컨
	내장부품	시트, 벨트, 콘솔박스, 에쉬트레이, 손잡이
	외장부품	기니쉬, 라이데터그릴, 엘블럼, 미러, 와이퍼, 썬루프, 휠
전기 장치	배터리	배터리
	배선	케이블, 커넥터
	모터	ABS, 도어락, 팬, 히터, 파워윈도우
	스위치	백업, 오이압력, 파워윈도우
	센서	에어백, 열/온도, 크랭크샤프트
	램프	헤드, 리어, 룡, 방향, 안개등
	컨트롤유닛	ECU, TCU
기타	고무제품	방진제품, 호스, 웨터스트링
	필터류	오일, 연료, 에어필터
	기타	기타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발전방향(2013)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초생태계를 다루는 만큼 충남 산업을 쉽게 조명해볼 수 있는 8개의 주제를 다루고자하며, 8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활용 자료
생태계 분포	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분포지도 작성	통계 자료 및 GIS
생태계 현황	②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③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산업 파악	
	④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	
	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분석	설문 조사 자료
	⑥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⑦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분석	
생태계 인식	⑧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①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분포지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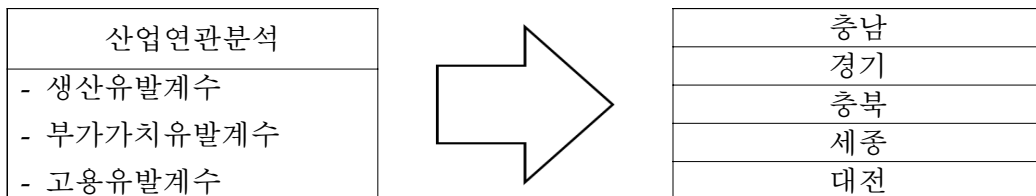
충남의 경우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공간적 기초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부품분야별 자동차부품산업의 분포지도를 읍면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경기, 충북, 세종, 대전과의 산업클러스터 형성관계를 살펴,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과 충남 내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지역에서의 상대적 집적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를 통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지를 찾고자 한다.

②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인해 자გი지역 및 인근 경기, 충북, 세종, 대전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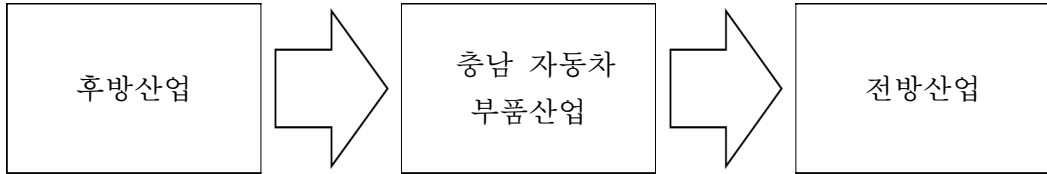
〈표 1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③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산업 파악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산업을 파악하여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이 충남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전후방산업 분석



④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

충남도의 자동차부품 산업을 부품분야별로 2006년과 2012년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이 충남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변이할당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변이할당분석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국가성장 효과(GN), 산업구조효과(MI), 지역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순변화효과(NC)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가 모두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이며, 산업구조효과가 음(-)이고 지역할당효과와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이다. 산업구조효과가 양(+)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이며,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가용면적의 제한 등 발전 잠재력 요소에 대한 애로가 있거나 외부비경제효과의 발생 또는 정부의 규제정책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분석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도급구조 분석은 향후 대중소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⑥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충남 내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자동차 부품분야를 찾아 건설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하며, 충남 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이 충남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⑦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분석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수출지원과 자동차부품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함

⑧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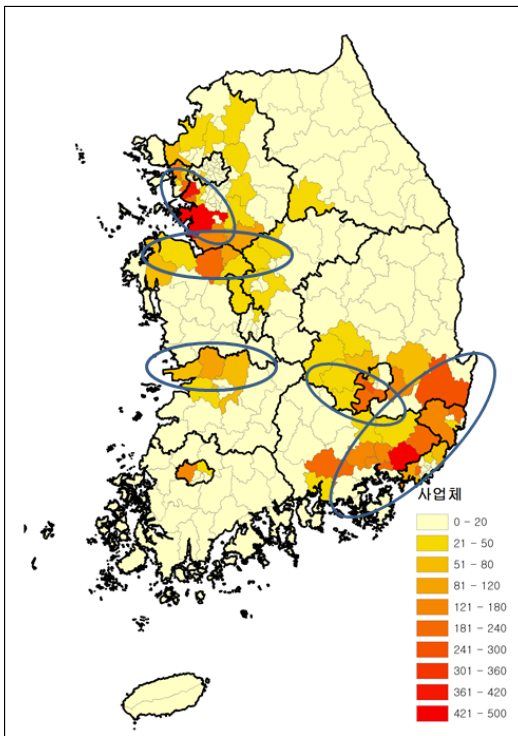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시장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그린카시장과 스마트자동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남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분포

1.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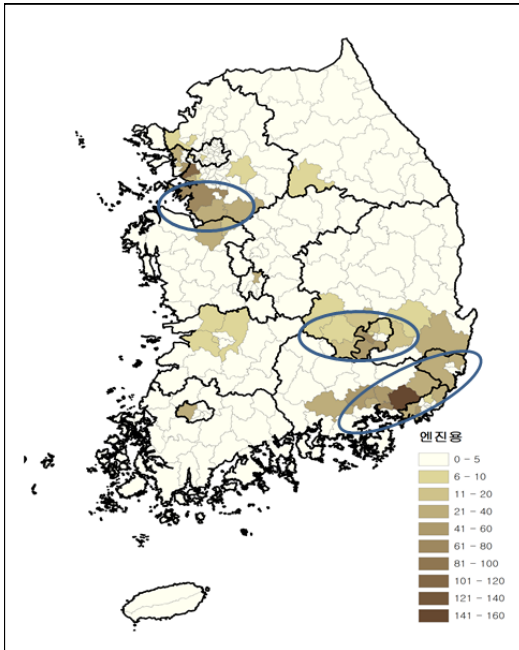
[그림 2] 총 사업체



총 사업체기준 5개 권역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 수도권 남서부지역
- ② 경주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등 남동임해지역
- ③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등 충청남도 북부지역
-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과 칠곡군, 영천시, 경산시 등 경북남부지역
- ⑤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전라북도 북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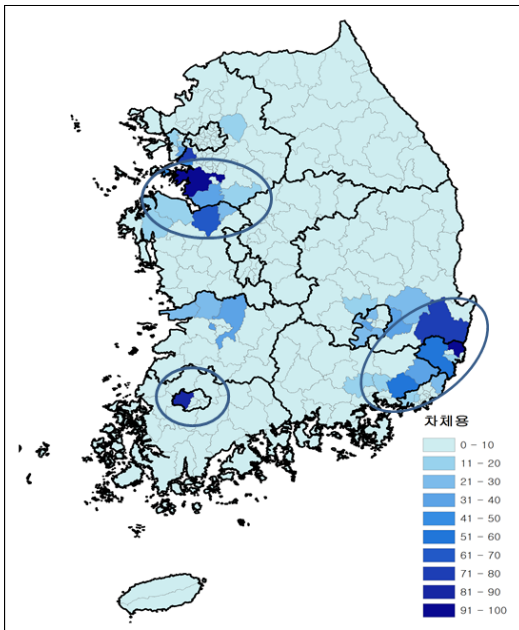
[그림 3] 엔진용 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 수도권 남서부지역과 안산시, 천안시 등 충청남도 북부지역
-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지역과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등 경북 남부지역
-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지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지역과 경주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등의 남동 임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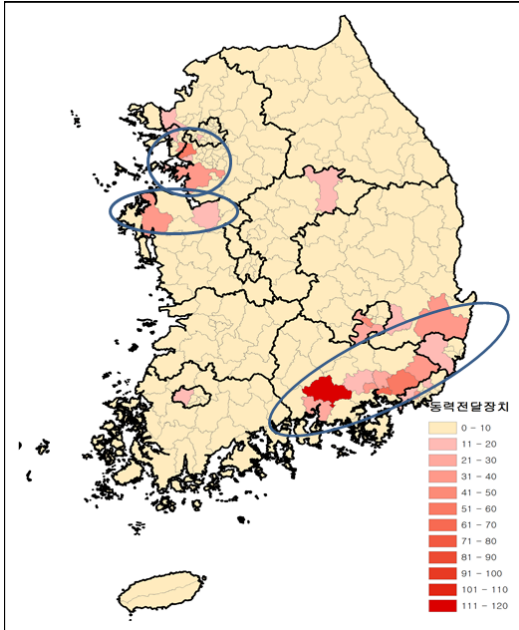
[그림 4] 차체용 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의 수도권 남서부 지역과 아산시 등의 충남 북부지역이 연계되어 있음
- ②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및 울주군 등의 남동해안 지역
- ③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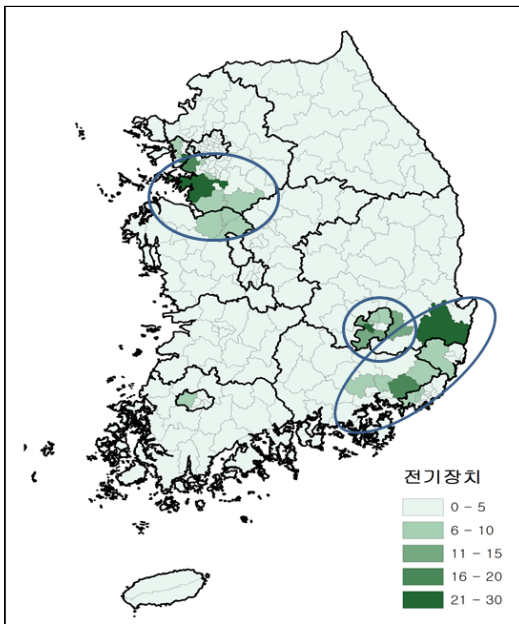
[그림 5]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사업체기준)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서울 남서쪽 외곽 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지역
- ② 충남 서산시, 아산시에 산재
- ③ 경남 진주시, 함안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등 남동해안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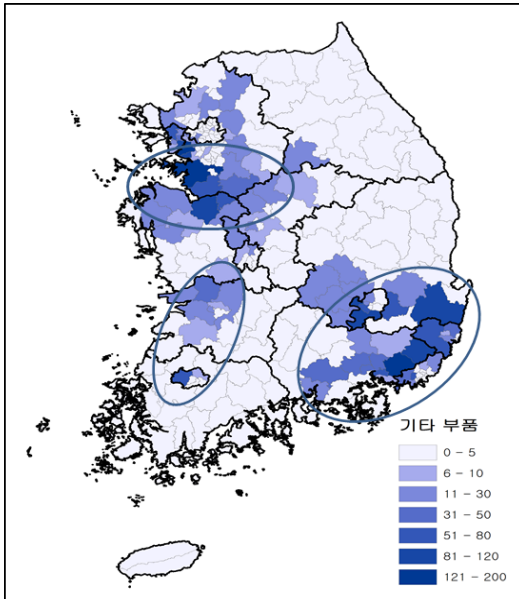
[그림 6] 전기장치 제조업(사업체기준)



전기장치 제조업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와 충남 북부가 연계된 지역
- ②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지역
- ③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일대 남동해안에 집중

[그림 7] 기타부품 제조업(사업체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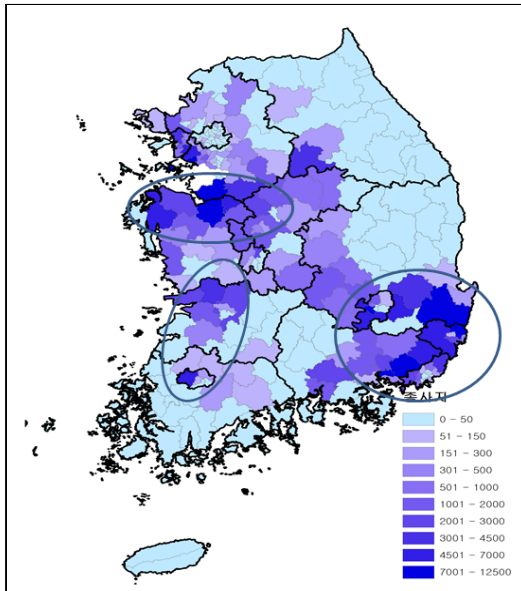


기타부품 제조업은 크게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수도권 남서부 인천광역시, 경기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지역 및 충남 북부 아산시, 천안시 일대
- ③ 전라권에서는 전북 군산시, 익산시 일대와 광주광역시
- ④ 경상권에서는 대구광역시 일원,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등의 남동해안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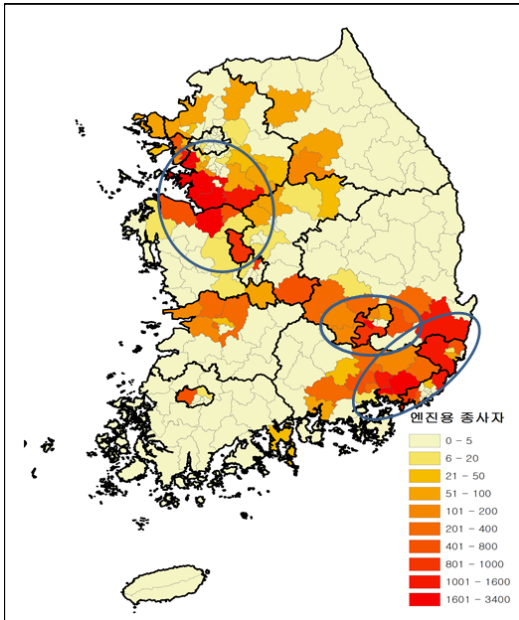
[그림 8] 총 종사자



총 종사자는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경기도 남서부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와 충남 북부 아산시, 서산시 일대에 광역화되어 밀집
- ② 대구광역시, 경북 경주시, 경산시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일대가 원반모양으로 집중
- ③ 기타 강원도 원주시, 전북 익산시 일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에 국지적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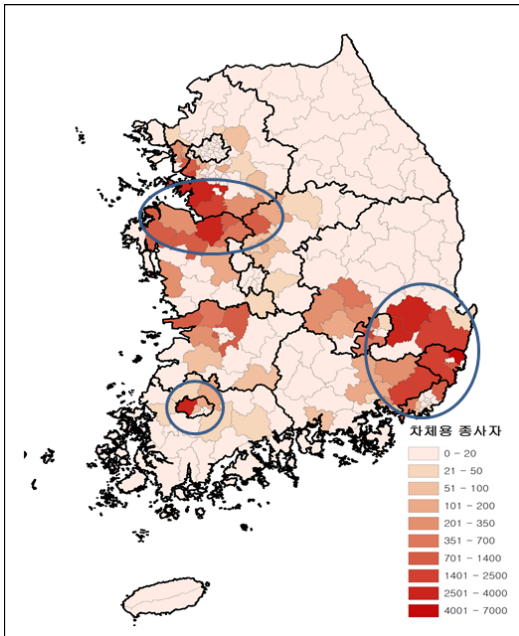
[그림 9] 엔진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엔진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경기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당진시, 아산시 등 충남 북부 지역이 연계
- ② 대구광역시,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진해시 일대까지 집중
- ③ 기타 세종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광주광역시 일대 국소적으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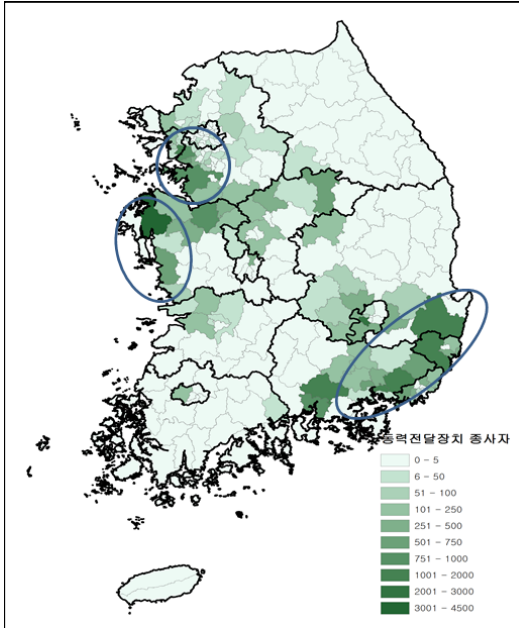
[그림 10] 차체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차체용 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의 수도권 남서쪽 지역과 아산시, 천안시 등의 충남 북부 지역이 연계
- ②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등의 경북 남동쪽 지역과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등의 경남 해안쪽에 벨트의 형태로 연계
- ③ 기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북 군산시, 완주군에 국소적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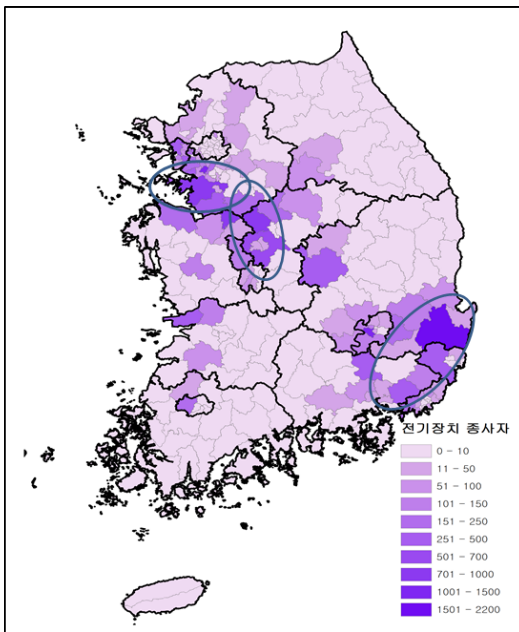
[그림 11]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경기도 서부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
- ② 충남 해안에 위치한 서산시, 보령시 일대
- ③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진주시 일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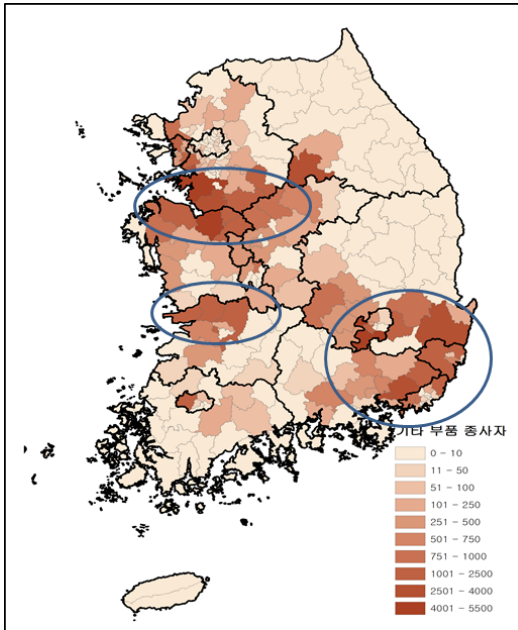
[그림 12] 전기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



전기장치 제조업(종사자기준)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① 경기도 남부 화성시, 평택시 일원
- ② 충북 서부 진천시, 음성시, 청주시 외곽에 집중
- ③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일대 남동해안에 집중

[그림 13] 기타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



기타부품 제조업(종사자기준)은 3개 권역에서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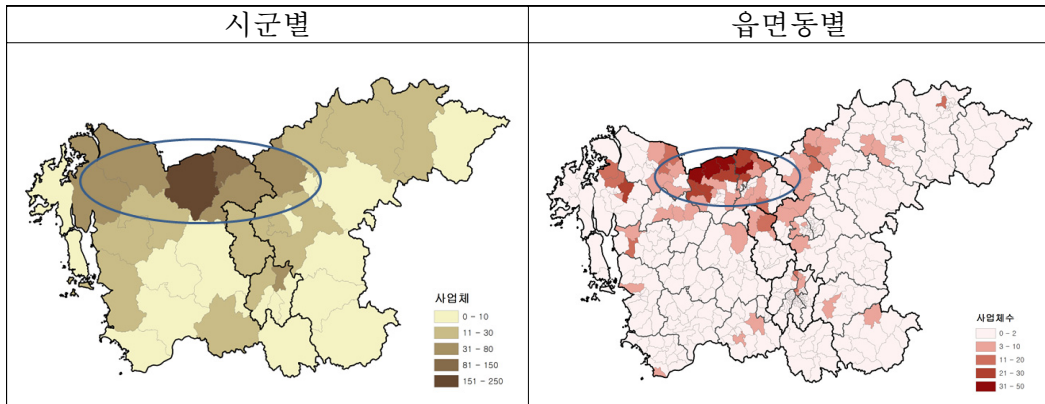
- ① 경기도 남부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일대와 충남 아산시, 당진시 일대와 연계
- ②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에 부분적으로 집중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 경북 경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와 연계

종합	
사업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수도권 남서부와 충남 북부 그리고 영남 내륙 대구광역시 주변 및 남동해안 지역으로 두 권역으로 분산되어 집중화된 패턴을 보임 ○ 부분적으로 전북 북부와 광주광역시 서부, 충북 북부에 편재된 양상
종사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기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밀집지역이 보다 광역화되어 나타남 ○ 수도권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이 보다 강하게 연계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동부와 경남 해안 일대의 집중도가 더욱 뚜렷함

2.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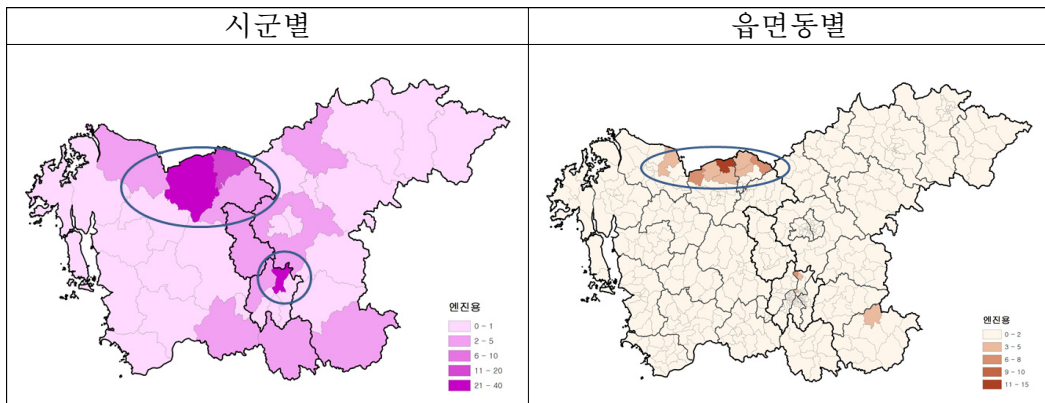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그림 14] 총 사업체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 아산시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주변의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진천시 등의 충청도 북부 지역이 벨트 형태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기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구 일대, 충남 논산시까지 전체적으로 T자 모양을 띠고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북부지역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과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의 집중도가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퍼져 있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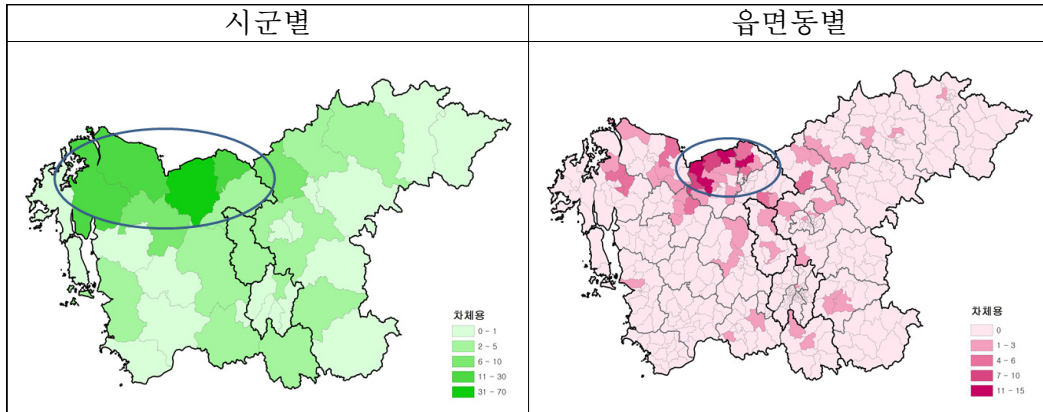
[그림 15] 엔진용 부품 제조업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 천안시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집중도가 가장 높고 이러한 핵심지역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북쪽에 위치한 둔포면 일대가 가장 밀도가 높고 주변 지역에 소규모로 집중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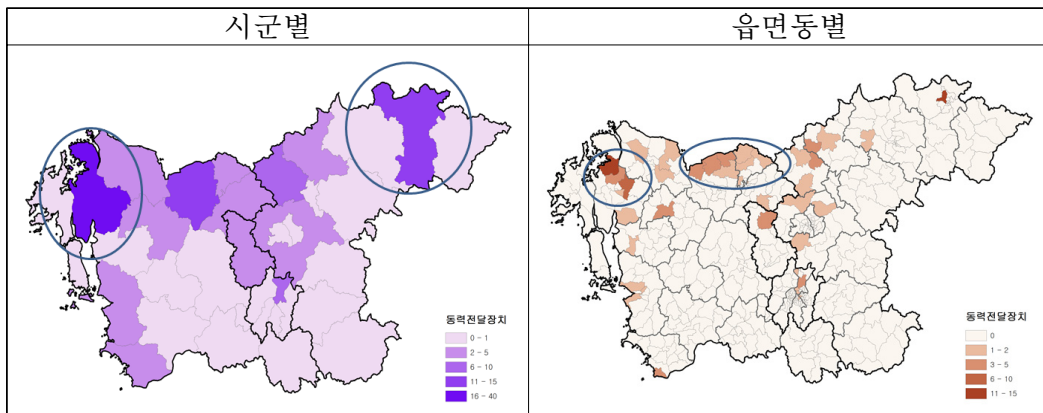
[그림 16] 차체용 부품 제조업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기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의 충남 북부 해안의 집중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양상을 보이나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일대는 비교적 집중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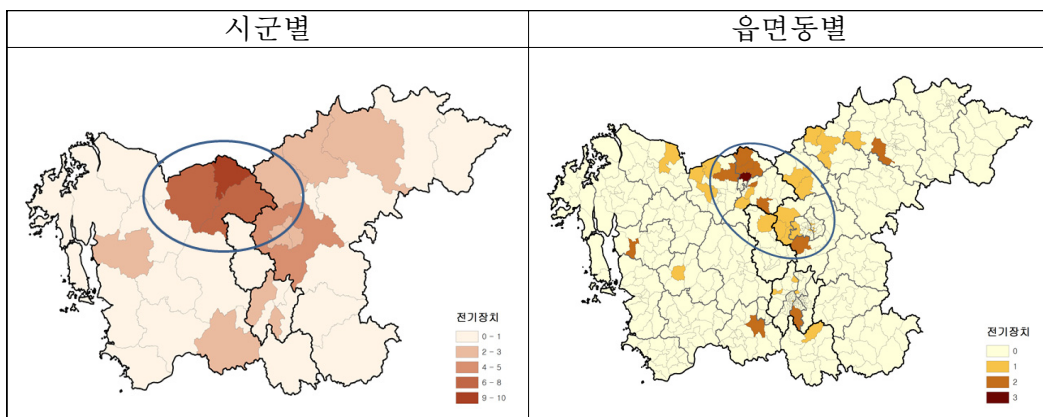
[그림 17]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진천군, 제천시 등 충청지방의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가장 확장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서산시와 제천시이 비중이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북서쪽 지역과 대전광역시 북동쪽 및 충북 서쪽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남 서산시 서쪽 해안의 지곡면 일대의 집중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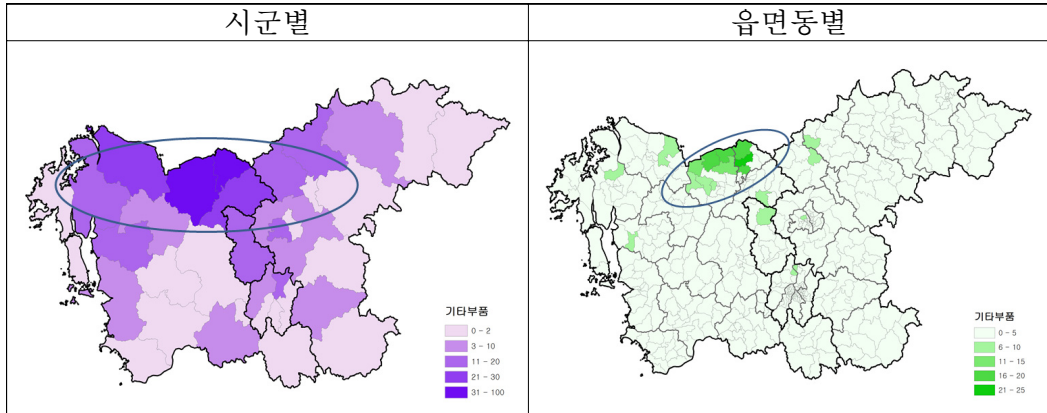
[그림 18]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제조업은 천안시를 중심으로 주변 아산시 일대에 집중도가 현저하고 청주시 외곽 지역과 연결된 양상을 띠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경부, 중부,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에 집중도가 뚜렷하여 교통의 입지적 요인을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의 집중도가 높은 가운데 남북 방향의 교통로 주변에 산재한 양상이었다.

[그림 19] 기타부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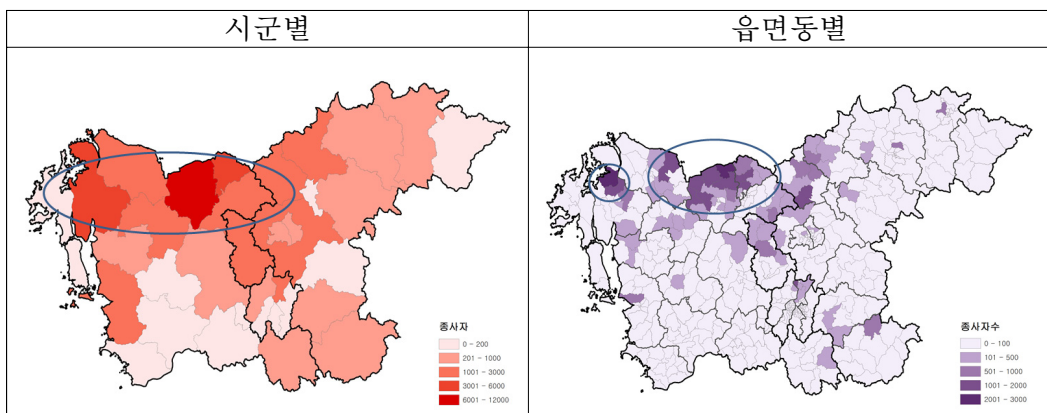


기타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집중된 양상을 띠며 주변에 서산시, 당진시, 홍성시, 천안시 등의 충남 북서부 지역과 진천시, 음성시 등의 충북 서부 지역까지 퍼져 있는 양상이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북부와 천안시 서부 지역의 집중도가 제일 뚜렷하고 나머지 지역은 미약하였다.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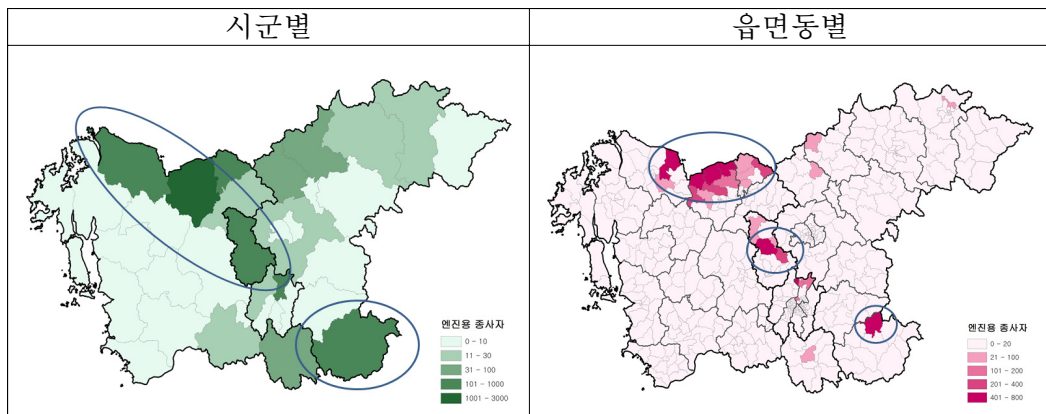
[그림 20] 총 종사자



충 사업체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보다 확장·분산된 모습이다. 아산시, 천안시, 천안시 등 충남 북서쪽 지역의 집중도가 높고 나머지는 이를 중심으로 점차 약화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북부 지역과 천안시 서부 지역, 서산시 서쪽 해안 지역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충남 북서쪽 일대의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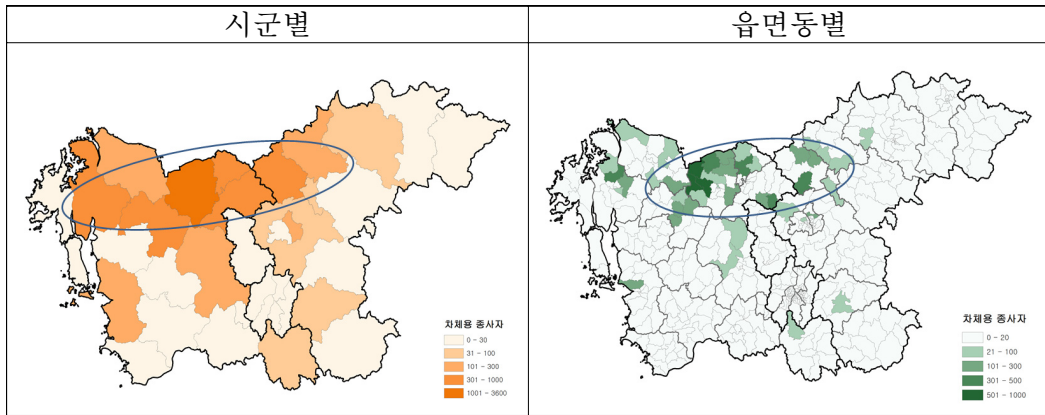
[그림 21] 엔진용 부품 제조업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의 밀집도가 제일 높은 가운데, 주변 서산시 및 천안시 등이 북부 지역이 동서 방향으로 퍼져 있는 양상이다. 또한 세종시와 주변 지역 그리고 영동군, 금산군, 논산시에 일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집중지역이 보다 공간적으로 퍼져 있는 양상이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 천안시 입장면 일대, 세종시 서면 일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일대에 선택적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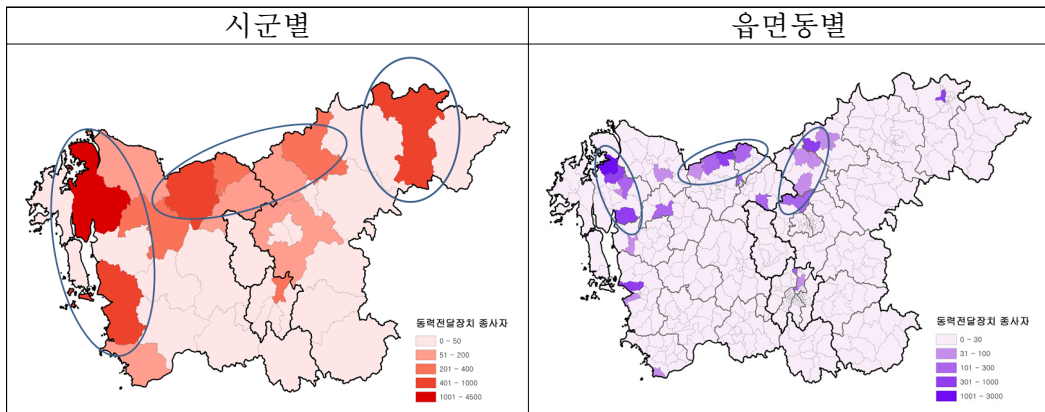
[그림 22] 차체용 부품 제조업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방향의 장방형의 형태로 집중되어 있으나 집중성은 높지 않고, 대전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도 북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선장면 일대의 집중도가 제일 높고 주변 지역도 비교적 밀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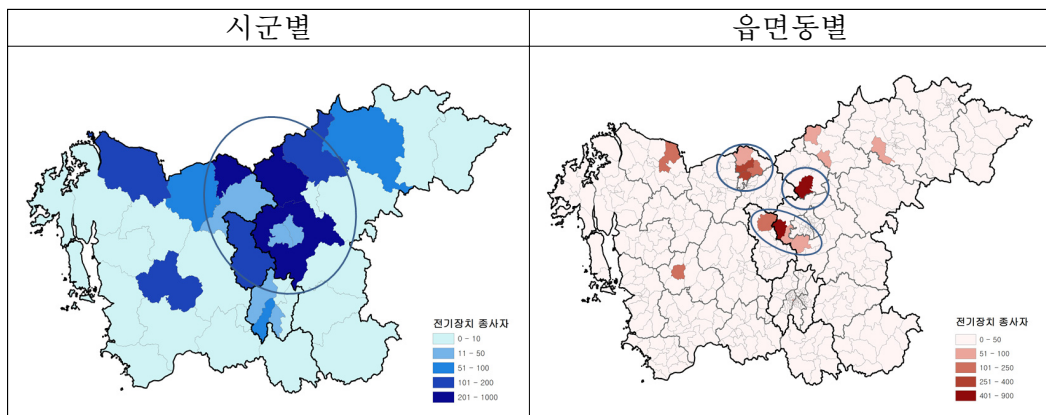
[그림 23]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충남 서산시가 가장 종사자수 비율이 높고 그 외에 보령시, 아산시 등의 충남지역과 제천시 등의 일부 충북지역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특히 아산시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외곽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북부와 서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충남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둔포리와 천안시 성환읍 그리고 서산시 지곡면과 고북리 일대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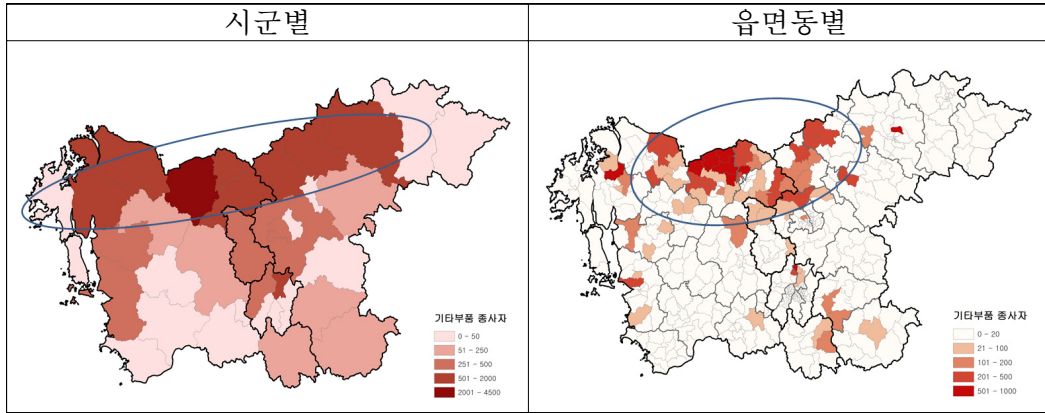
[그림 24]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제조업은 자동차 주요 사업체 있는 충남 아산시 주변 지역 충북 진천, 청주시 외곽지역, 충남 천안시 성환읍 일대가 밀도가 높았고, 세종시, 충남 당진시, 청양군, 충북 음성군 지역도 일부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 서쪽 외곽 강외면 일대, 진천군 문백면 일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일대처럼 분산되어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5] 기타부품 제조업



기타부품 제조업은 충남 아산시의 밀도가 제일 높은 가운데 동서방향을 따라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충북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까지 충청 북부 지방에 집중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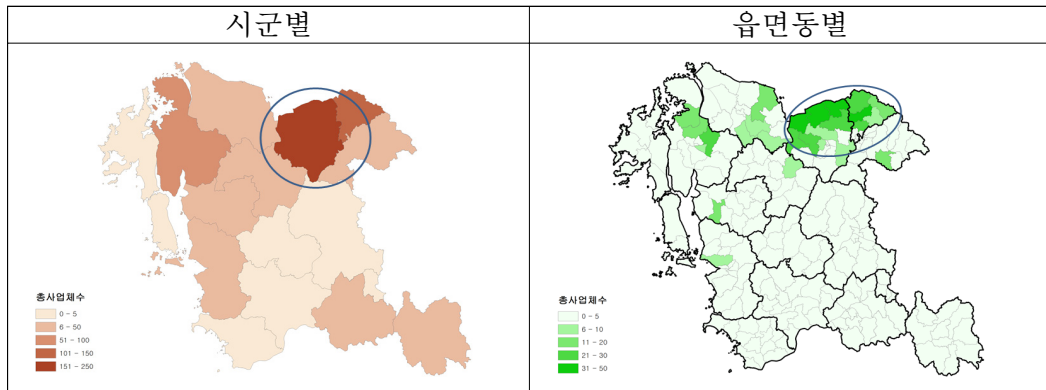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북부 아산시, 천안시와 충북 서부 청주시 오창읍 그리고 세종시 북부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종합	
사업체 기준	○ 충청 지방의 주요 핵심지역은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와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직산읍) 일대의 비중이 높고 동서방향으로 확장된 패턴임
종사자 기준	○ 사업체 기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전기장치 제조업, 기타부품 제조업 부문에서는 충남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를 중심으로 광역화된 양상을 띠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도

1) 사업체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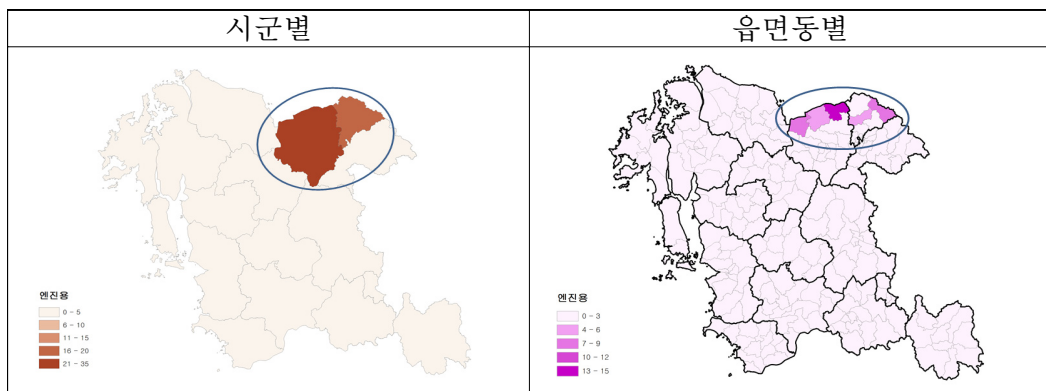
[그림 26] 총 사업체



아산시의 집중도가 제일 높고 그밖에 천안시 성환읍 일대와 서산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와 논산시, 금산군 지역도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와 인접한 충남 북부 지역의 집중도가 뚜렷하고,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환읍 일대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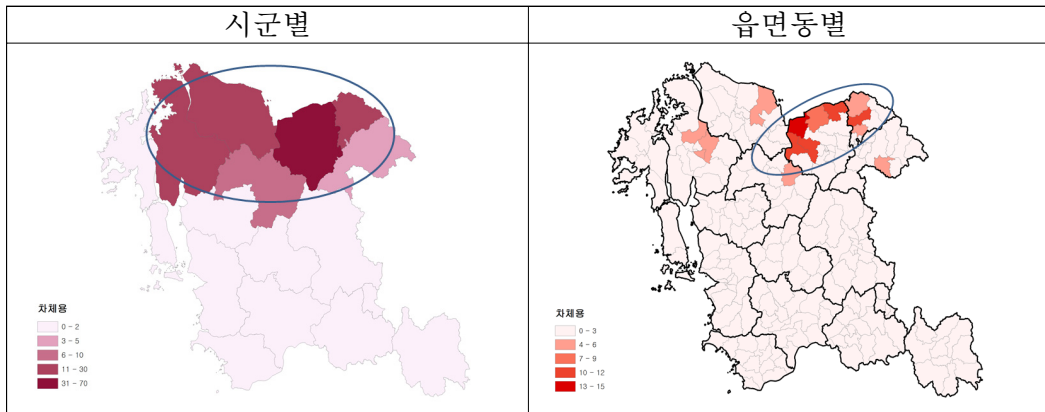
[그림 27] 엔진용 부품 제조업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사업체 분포를 따라서 아산시와 천안시 성환읍 일대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둔포면 일대가 집중도가 가장 높고 주변 지역에 국소적으로 집중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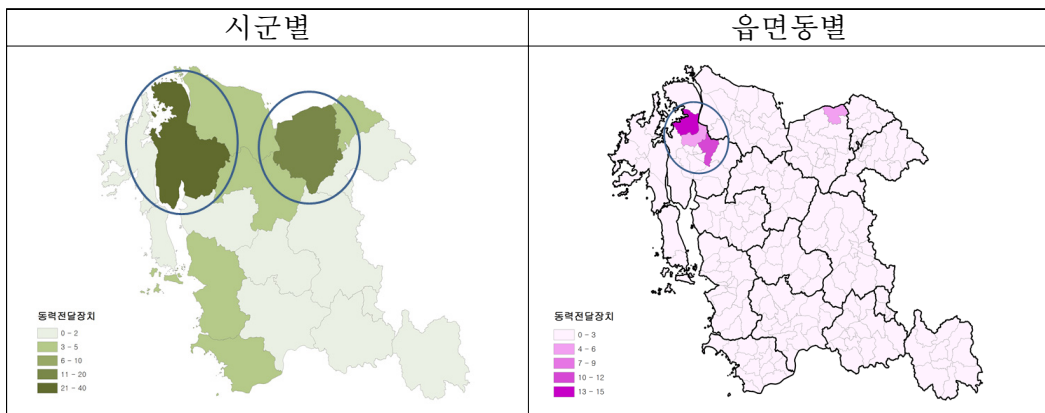
〔그림 28〕 차체용 부품 제조업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아산시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성환읍 일대처럼 북부 지역의 집중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인주면을 중심으로 선장면, 둔포면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대에 벨트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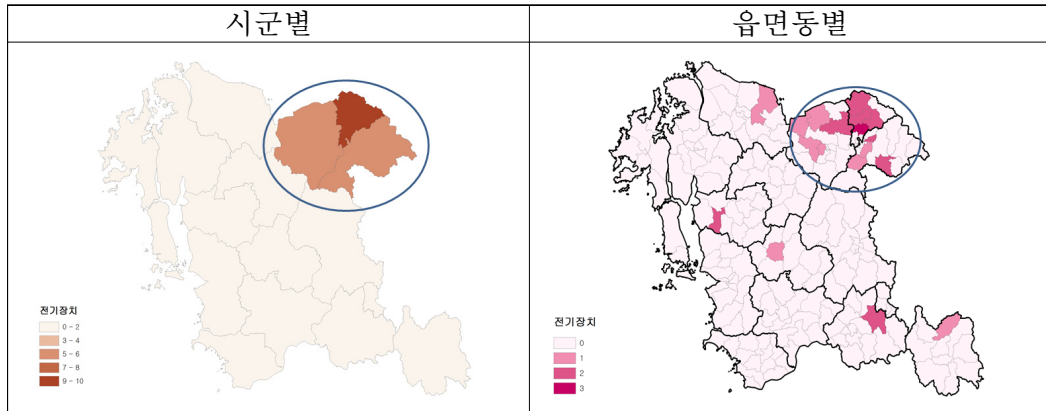
〔그림 29〕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서산시의 집중도가 제일 높고 다음 아산시가 높았으며, 기타 당진시, 예산군, 보령시, 서천군이 비교적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서산시 지곡면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이 집중도가 현저하고 일부 아산시 둔포면에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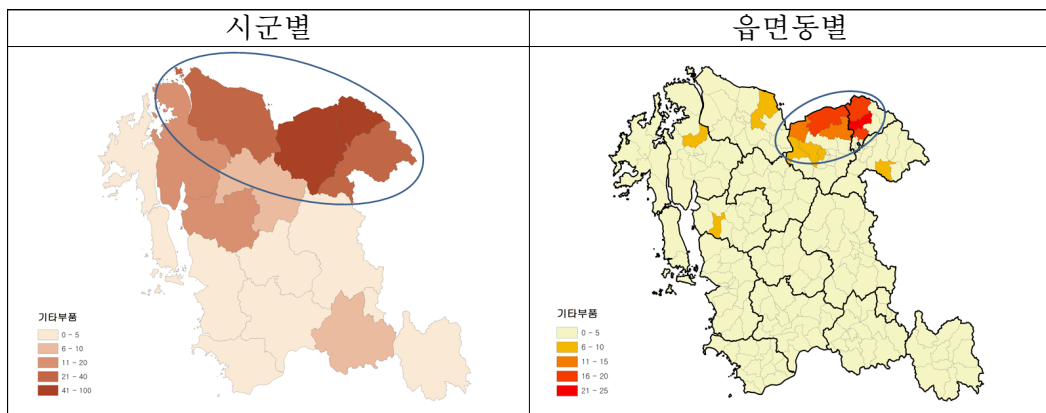
[그림 30]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제조업은 천안시 성환읍 일대가 제일 집중도가 뚜렷한 가운데 주변 지역에 일부 집중되어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집중도가 현저한 가운데 주변 동남구 및 아산시 북부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홍성군 결성면, 논산시 연산면 등에서도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기타부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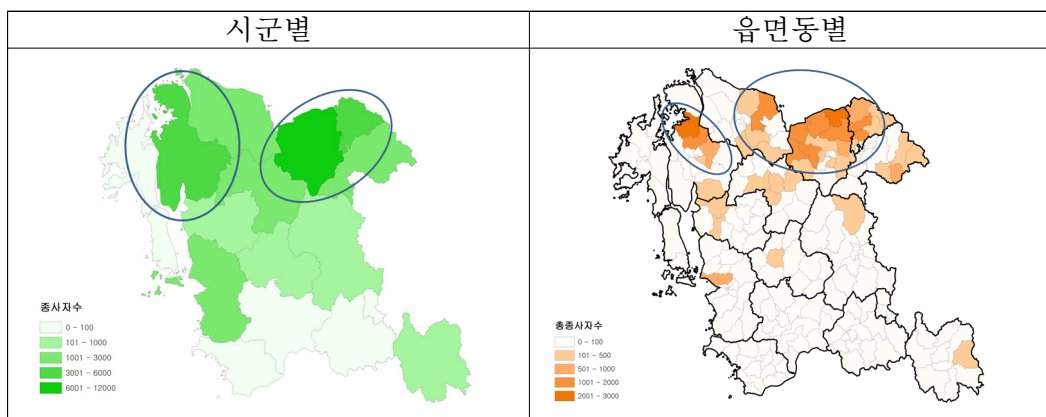


기타부품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충남 북부 지역의 집중도가 현저한데, 아산시 가장 집중도가 뚜렷하고 주변의 당진시, 천안시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북쪽에 소재한 영인면, 둔포면과 천안시 서쪽에 소재한 서북구 성환읍, 직산읍, 부성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2) 종사자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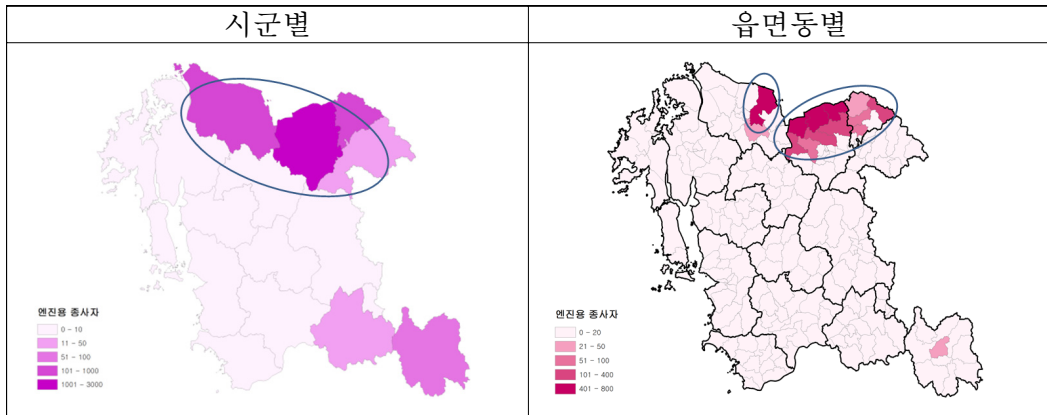
(그림 32) 총 종사자



사업체를 따라서 아산시의 밀도가 가장 높고 기타 천안시 서북구, 서산시 등 충남 북서부 일대의 비중이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충남 북부에 많이 밀집된 경향을 보이거나 북부지역에서는 더러 분산된 패턴이며, 서산시 지곡면 일대, 당진시 송악면 일대, 아산시와 천안시 북부 지역에 주로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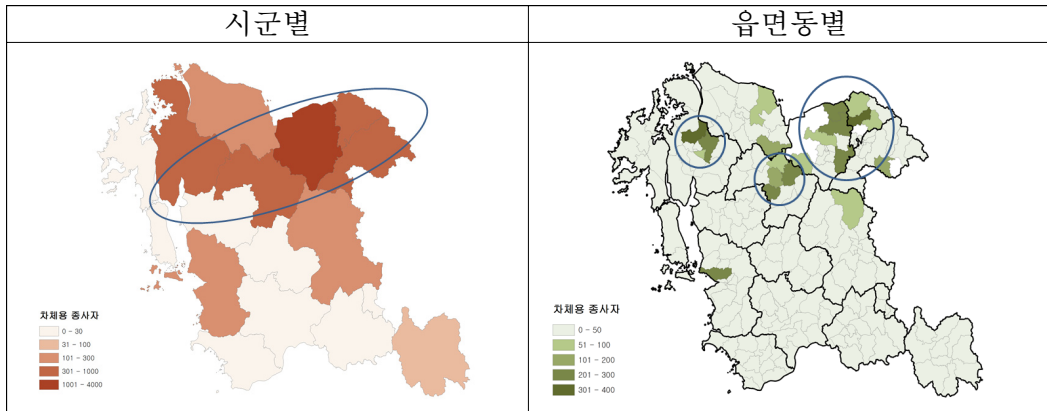
[그림 33] 엔진용 부품 제조업



엔진용 부품 제조업은 아산시, 당진시, 천안시 서북구 일대의 집중도가 뚜렷하며, 기타 금산군, 논산시 일대에 일부 집중되어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당진시 송악면 일대, 아산시 선장면,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 천안시 서북구 일대처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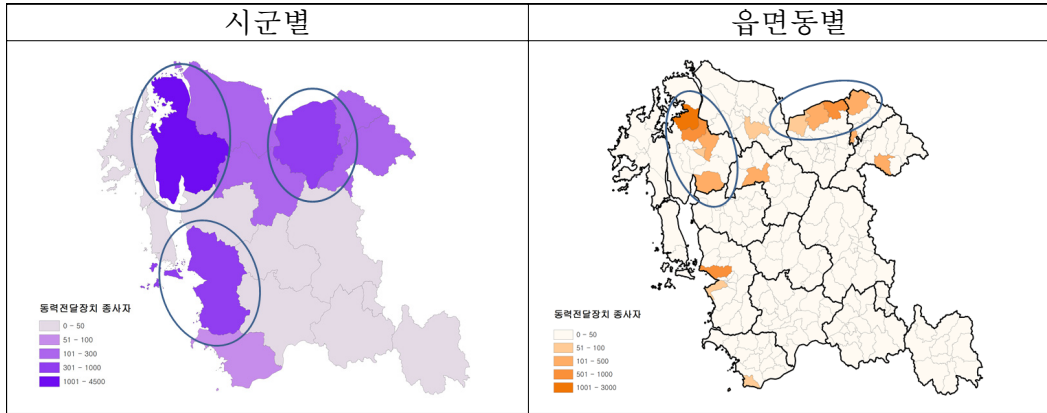
[그림 34] 차체용 부품 제조업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아산시를 중심으로 서산시, 예산군, 천안시 등이 동서 방향의 장방형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서산시 성연면, 응암면 일대와 예산군 예산읍, 응봉면 일대 그리고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경계 부근에 주로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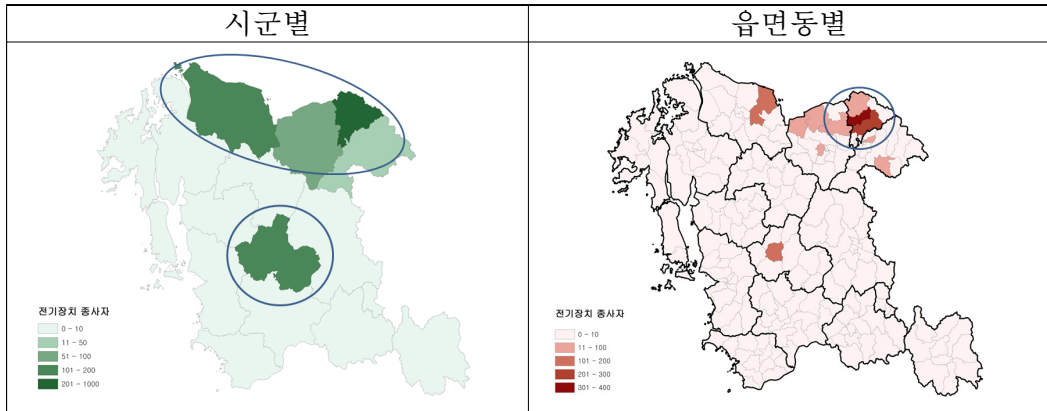
[그림 35]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충남 서부 해안 쪽의 밀도가 높으며 북부 지역도 비교적 높았다. 특히 서산시의 집중도가 가장 현저하고, 아산시와 보령시가 다음으로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서산시 지곡면 일대가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이어서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북쪽일 대 등에도 일부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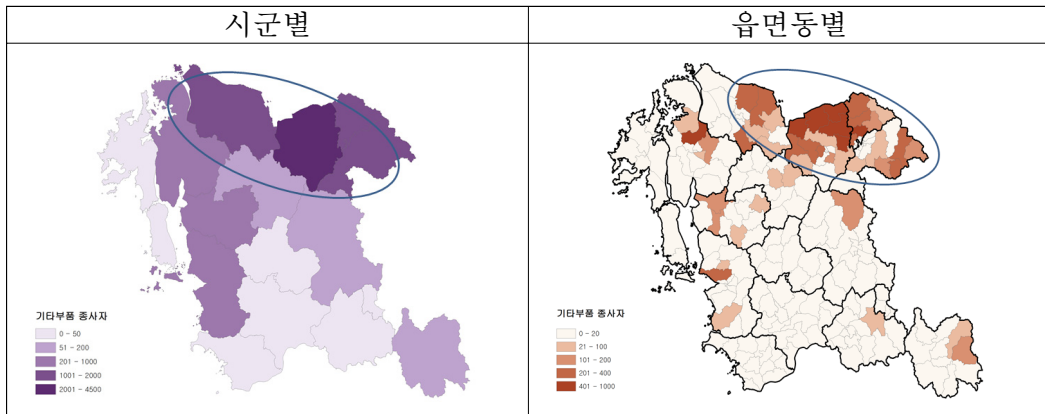
[그림 36]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장치 제조업은 천안시 서북구 일대가 제일 밀도가 높고 그 주변 아산시, 당진시, 청양군 일대도 비교적 밀도가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대가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기타 당진군 송악면, 청양군 청양읍 일대가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림 37] 기타부품 제조업



기타부품 제조업은 밀도가 가장 높은 아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당진시와 천안시 그리고 서쪽 해안 일대에 비교적 밀도가 높았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음봉면 일대와 천안시 서북구 부성동 일대처럼 충남 북부 지역의 집중도가 높으며 남쪽으로 가면서 분산된 경향을 보인다.

종합	
사업체 기준	○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와 천안시 서북구(직산읍, 성환읍) 일대의 집중도가 높음
종사자 기준	○ 사업체 기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보다 광역화된 양상을 띠고 특히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부품 제조업의 경우 핵심지역 주변에 넓게 분포된 양상을 보임

제4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현황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

본 절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연관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일정기간동안 각 산업 부문간에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그리고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에 따른 판매를 기록한 한 나라경제의 종합적이 통계표이다.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자료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의 산업구조¹⁾를 기반으로 하여 충남의 수출이 충남 및 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გი지역 및 타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에서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Z_{11}),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Z_{21} + \dots + Z_{n1}$),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M_1),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V_1)를 투입하였음을 뜻한다.

1) 2010년 산업구조 보정은 향후 연구로 남긴다.

[그림 38]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지역내 산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업1	...	산업 n	산업1	...	산업 n	산업1	...	산업 n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국 산 투 입	지 역 1	산업1 : 산업 n	Z_{11}		투 입 구 조 ↓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산업 n	배 분 구 조 →														
	지 역 n	산업1 : 산업 n	Z_{n1}				Z_{nn}		Y_{n1}^d		...		Y_{nn}^d		X_n		
	수입 투입	산업1 : 산업 n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1				V_n										
지역내 산출액			X_1				X_n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გი지역 및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გი지역 또는 타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გი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_{11}) 및 타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_{12}+\dots+Z_{1n}$)와 자기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수요(Y_{11}^d) 및 타지역의 소비투자로 사용된 최종수요($Y_{12}^d+\dots+Y_{1n}^d$)로 배분되었음을 뜻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

본 절에서는 2009년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업간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산업별 최종수요가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4〉 자동차부품산업 산업연관효과

	생산유발 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 계수
전산업	1.955	0.687	0.313
제조업	2.081	0.589	0.411
자동차부품	2.699	0.631	0.369

주 : 단순평균(168부문)

자료 : 2009년 산업연관분석

산업별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산업별 생산유발계수²⁾를 살펴보면 2009년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995로 나타났고, 제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2.08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부품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2.699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³⁾를 살펴보면 2009년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87로 나타났고,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89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부품 평균 부가가치는 0.631로 나타났다.

산업별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는 2009년 전산업 평균 0.313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평균 수입유발계수는 0.41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부품 평균 수입유발계수는 0.369로 나타났다.

2009년 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⁴⁾에만 순수하게 1,000억이 투자된다면 그로인한 생산유발액은 1,803억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액은 421억, 수입유발액은 217억, 취업유발인원은 1,075명으로 나타났다.

2)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 단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산업 및 타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3)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낸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87이라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하였을 때 687원은 국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나머지 313원은 중간재 수입 등에 사용되어 해외로 유출됨을 의미한다.

4) 여기서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엔진 및 자동차부분품을 의미

자동차산업은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면에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여, 산업연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과효과

〈표 15〉 1,000억 투자 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유발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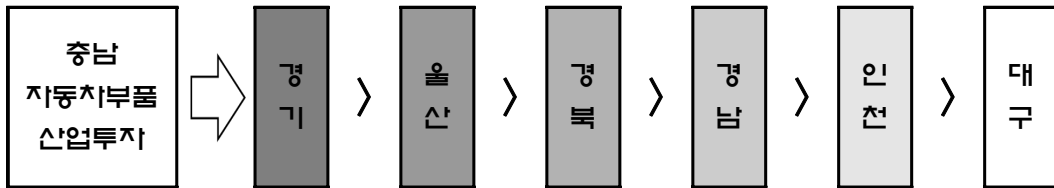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유발액	시도별 전산업 생산유발액
서울	61	8,230
인천	2,787	9,423
경기	9,937	26,942
대전	1,012	3,683
충북	243	2,357
충남	100,000	113,050
광주	956	2,147
전북	1,861	3,366
전남	59	12,229
대구	2,716	5,222
경북	3,917	16,762
부산	1,071	4,972
울산	5,918	12,806
경남	3,474	9,810
강원	700	1,281
제주	0	151
계	134,712	232,431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결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1,000억이 투입된다면⁵⁾ 그로인한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유발액은 2,324억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572억, 수입유발액은 158억, 취업유발인원은 1,178명으로 나타났다.

5) 실질적으로는 1,000억 생산유발이 일어난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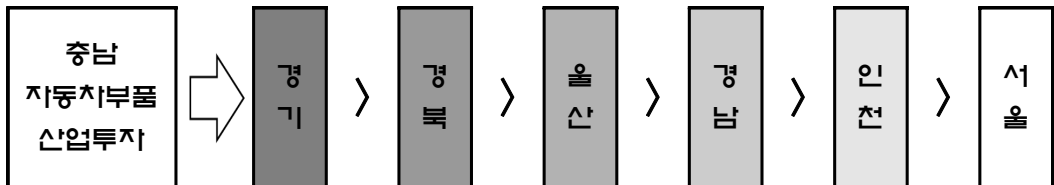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산업만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울산, 경북, 경남, 인천, 대구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시도별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유발효과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전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경북, 울산,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40〕 시도별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타지역의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기도는 자동차부품산업은 물론 전산업에 대해서도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경기도와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

국민경제 내 각 산업은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산업의 생산물을 위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그 산업의 생산증가는 다른 산업들의 생산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후방연쇄효과라고 한다.

반대로 어떤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면 다른 산업의 생산증가는 그 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 이를 전방연쇄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전방 및 후방 연쇄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각각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영향력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에 중간재가 많이 투입될수록 영향력계수는 높게 나타난다. 전방연쇄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그 산업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쓰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16〉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

후방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전방산업
소재산업 -자동차 내/외부 소재산업 -철강,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섬유, 피혁 등 시험연구 및 생산설비 산업 -자동차 설계/제작 연구 및 제조 설비 산업 -디자인연구, 설계, 자동화 설비, 금형, 공작기계	자동차 산업 -완성차 산업 -크기/목적/용도 별 완성차량 자동차부품산업 -자동차 내/외장 부품산업 -축, 패드, 디스크, 타이어 등 자동차 구성요소/부품	인프라, 금융산업 -교통시설, 도로, 정보인프라, 보험 산업 등 유통/정비/운송 산업 -자동차 판매, 마케팅, 부품교체, 정비 등 -화물수송, 주차관리설비, 렌트리스 산업 등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산업기술로드맵 자동차 분야

자동차산업은 단순부품부터 고도의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품목이 다양하고 소재산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등과도 연관되는 등 기술집약형 지식기반산업에 해당된다.

1)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78개 부문 영향력계수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은 철강1차제품, 플라스틱제품, 선철 및 조강, 석유제품, 금속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철강1차제품⁶⁾, 전남의 철강1차제품,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선철 및 조강⁷⁾, 충남의 철강1차제품이 주요 후방산업이었다.

6) 철강1차제품은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주단강품, 기타 철강1차제품으로 구분

7) 선철 및 조강은 선철, 합금철, 조강으로 구분

〈표 17〉 충남 자동차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상위 30개)

지역 · 산업별 영향력계수			지역 · 산업별 감응도계수		
충남	자동차	0.6560	충남	자동차	0.6560
경기	자동차	0.0535	대전	자동차	0.0766
울산	자동차	0.0396	충남	기타서비스	0.0443
경북	철강1차제품	0.0253	전남	자동차	0.0426
경남	자동차	0.0238	울산	자동차	0.0406
전남	철강1차제품	0.0237	전북	자동차	0.0366
경북	자동차	0.0216	인천	기타서비스	0.0353
경기	플라스틱제품	0.0182	광주	자동차	0.0351
인천	자동차	0.0150	부산	자동차	0.0343
대구	자동차	0.0150	경기	기타서비스	0.0310
전남	선철 및 조강	0.0142	경북	자동차	0.0297
충남	철강1차제품	0.0130	대구	자동차	0.0297
서울	도소매	0.0127	대전	기타서비스	0.0294
경북	선철및조강	0.0120	서울	자동차	0.0279
충남	플라스틱제품	0.0116	인천	자동차	0.0273
전북	자동차	0.0098	경기	자동차	0.0271
울산	석유제품	0.0096	강원	자동차	0.0255
경기	금속제품	0.0095	서울	기타서비스	0.0250
경기	전기기계및장치	0.0078	충북	자동차	0.0228
서울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077	제주	기타서비스	0.0210
경남	철강1차제품	0.0076	전북	기타서비스	0.0175
부산	자동차	0.0073	전남	기타서비스	0.0175
전남	기초화학제품	0.0069	광주	기타서비스	0.0173
대전	자동차	0.0068	충남	육상운송	0.0166
충남	전기기계및장치	0.0067	경북	기타서비스	0.0147
인천	철강1차제품	0.0067	경남	자동차	0.0140
울산	기초화학제품	0.0064	대구	기타서비스	0.0137
경북	플라스틱제품	0.0064	인천	육상운송	0.0129
경기	연구기관	0.0061	울산	기타서비스	0.0121
전남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61	대전	육상운송	0.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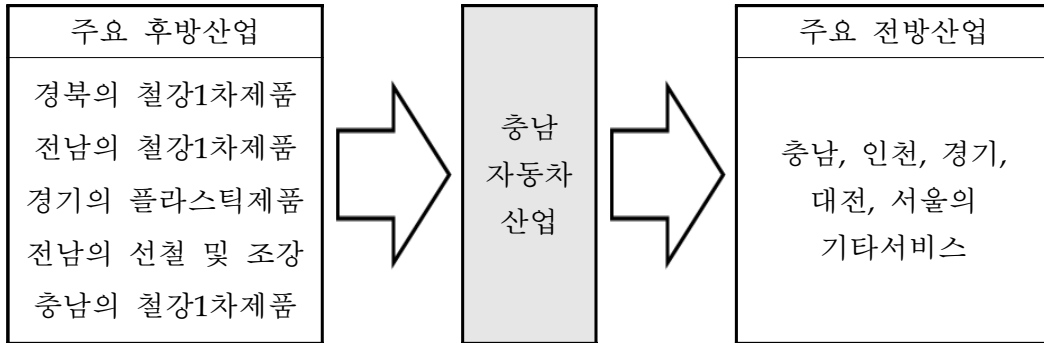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분석

또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78개 부문 감응도계수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수리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서비스⁸⁾, 도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⁹⁾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8) 기타서비스는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로 구분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대전, 서울의 기타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이었다.

〈표 18〉 충남 자동차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부문 영향력계수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후방산업은 플라스틱제품, 열간압연강재, 조강, 석유화학기초제품, 기타금속제품,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경북의 열간압연강재, 충남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열간압연강재, 경북의 조강 등이 주요 후방산업이었다.

9) 육상운송은 철도운송, 도로운송, 택배로 구분

〈표 19〉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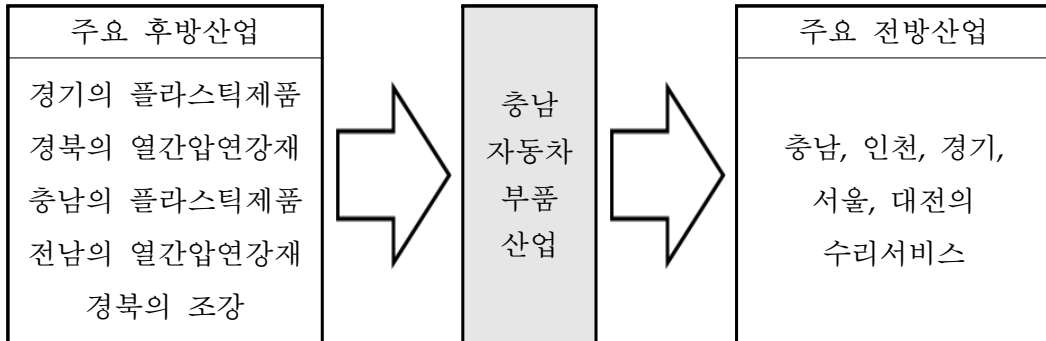
지역 · 산업별 영향력계수			지역 · 산업별 감응도계수		
충남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6539	충남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6539
경기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650	충남	자동차	0.1135
울산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387	충남	수리서비스	0.0866
경기	플라스틱제품	0.0264	대전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740
경북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56	인천	수리서비스	0.0646
경남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27	대전	자동차	0.0631
경북	열간압연강재	0.0223	경기	수리서비스	0.0584
인천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182	서울	수리서비스	0.0529
대구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178	대전	수리서비스	0.0525
충남	플라스틱제품	0.0165	울산	자동차	0.0487
전남	열간압연강재	0.0145	부산	자동차	0.0482
전북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122	경남	자동차	0.0479
서울	도소매	0.0117	광주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475
경북	조강	0.0090	전북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454
전남	조강	0.0089	전남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444
경북	플라스틱제품	0.0084	제주	수리서비스	0.0373
전남	석유화학기초제품	0.0080	광주	수리서비스	0.0343
경기	기타금속제품	0.0080	전북	수리서비스	0.0337
전남	합성수지	0.0080	전남	수리서비스	0.0332
경남	주단강품	0.0079	전북	자동차	0.0306
전남	냉간압연강재	0.0074	광주	자동차	0.0302
울산	석유화학기초제품	0.0074	전남	자동차	0.0290
전남	선철및합금철	0.0071	경기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79
부산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070	경북	자동차	0.0279
울산	연료유	0.0067	대구	자동차	0.0279
대전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066	인천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74
광주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063	서울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65
경북	선철및합금철	0.0061	경북	수리서비스	0.0263
경기	기타전기장치	0.0059	경북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58
울산	합성수지	0.0059	대구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258

자료 : 2005년 지역산업연관분석

또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부문 감응도계수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방산업은 수리서비스, 택배, 도로운송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 · 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서울, 대전의 수리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이었다.

〈표 2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¹⁰⁾

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지역에서의 상대적 집적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¹¹⁾를 통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를 살펴보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수는 2012년 기준 3.2으로 매우 높고, 자동차부품 산업 중 특히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의 입지계수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수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차체용 부품,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전기장치, 자동차 엔진용 부품 순이었다.

1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기여도는 2014년 1차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11)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충남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 비중이 전국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

〈표 21〉 시도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계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동차부품 산업	0.0	0.6	1.7	1.2	0.9	0.4	3.3	2.1	1.0	0.6	1.2	3.2	1.3	0.1	2.2	2.1
자동차 엔진용 부품	0.0	0.9	1.8	1.5	0.5	0.7	2.0	7.7	1.3	0.2	0.5	2.3	0.7	0.0	1.2	2.9
자동차 차체용 부품	0.0	0.4	1.3	0.7	1.8	0.0	7.4	0.1	0.8	0.0	0.8	3.4	1.5	0.1	3.5	1.3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0.0	0.8	2.0	1.3	0.2	0.5	2.7	0.2	0.6	0.0	1.4	5.4	0.5	0.0	1.6	3.4
자동차용 전기장치	0.0	0.4	1.9	1.2	0.3	0.3	1.0	2.9	1.3	0.2	3.7	2.3	0.9	0.1	3.7	0.8
기타 자동차 부품	0.0	0.6	1.8	1.3	1.0	0.5	2.0	1.2	1.1	1.4	1.4	2.9	1.9	0.1	1.8	2.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3.3) 다음 순이며, 그 차이가 0.1에 불과하였으며, 자동차부품산업을 부품 영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에서 입지계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충남은 모든 세부 부품영역에서 모두 3위권에 드는 유일한 시도로서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양중, 2014).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기여도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세부 영역별로 2006년과 2012년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이 충남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변이할당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변이할당분석은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국가성장효과(GN), 산업구조효과(MI), 지역할당효과(SR), 총변화효과(TC), 순변화효과(NC)로 구분할 수 있다(김석중 2012).

본 연구에서 국가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는 일정기간 동안 충남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용량 증가량 중에서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으로 유발된 고용

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산업구조효과는 전체 자동차부품 산업의 총성장률에서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감한 자동차부품 산업의 순성장으로 인한 고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할당효과는 전국의 타지역에 대비한 충남지역의 경쟁적 지위를 설명하며, 충남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경쟁력)으로 인한 고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 22〉 변이할당 분석결과

구 분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효과	지역 할당 효과	총변화 효과	순변화 효과
자동차부품산업	+	+	+	+	+
자동차 엔진용 부품	+	+	+	+	+
자동차 차체용 부품	+	+	-	+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	+	+	+	+
자동차용 전기장치	+	-	+	+	+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	-	-	+	-

변이할당 분석결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순변화효과가 모두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효과가 음(-)이고 지역할당효과와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효과가 양(+)이고, 지역할당효과가 음(-)이며, 순변화효과가 양(+)인 유형은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가용면적의 제한 등 발전 잠재력 요소에 대한 애로가 있거나 외부비경제효과의 발생 또는 정부의 규제정책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산업이고,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둘 중 하나가 양(+)이라도 순변화효과가 음(-)인 유형은 지역적으로 이점이 없는 산업이며,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음(-)인 유형은 열위산업을 의미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할당효과로 표현이 가능하며,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는 정책의 직접적 성과라기보다는 간접적 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할당

효과가 (+)이면 지역전략산업이 전국 해당산업보다 빨리 성장함을 의미하며, 전략산업의 정책효과가 직접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충남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하여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 산업이었으며, 자동차용 전기장치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유형

구 분	유 형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산업구조는 양호하나 입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지역적으로 이점이 없는 산업과 열위산업

이상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충남의 4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해온 충남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남 TP 자동차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김양중, 2014).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분석

〈표 2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구조

(단위: %)

구분	1차벤더	2차벤더	3차벤더	계
바디	39.6	47.9	12.5	100.0
동력발생장치	14.9	53.2	31.9	100.0
동력전달장치	10.0	66.7	23.3	100.0
제동장치	16.7	83.3	0.0	100.0
조향장치	0.0	50.0	50.0	100.0
의장	20.6	47.1	32.4	100.0
전장	14.0	58.0	28.0	100.0
기타	18.6	28.8	52.5	100.0
전체	19.6	50.3	30.1	100.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1차벤더가 19.6%, 2차벤더가 50.3%, 3차벤더가 30.1%로 나타났다. 충남은 모든 자동차부품영역에서 2차벤더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제동장치에서 2차벤더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차벤더의 경우 바다생산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3차벤더의 경우는 기타 부품생산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관계

(단위: %)

구분	비율
독립적인 관계	2.8
경쟁·대립적인 관계	64.7
수평·협력적인 관계	16.0
지배·종속적인 관계	16.6
계	100.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관계는 경쟁·대립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4.7%, 지배·종속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16.6%로 나타났고, 독립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에 불과하여, 발주기업과 하청기업간 도급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6〉 발주기업과 거래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비율
낮은 납품단가	31.9
대금결제 장기화	20.6
납품기일촉박	27.6
무분별한 거래선 변경	4.1
계약기간 단기화	11.2
납품커미션 또는 접대요구	1.1
구두계약 등 서면계약 미실시	0.9
현금이 아닌 어음을 통한 결제	2.0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0.6
계	100.0

주: 총 326개의 기업에서 652개 복수응답 하였음

하청기업이 발주기업과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납품단가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품기일촉박(27.6%), 대금결제 장기화(2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납품단가는 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력 사업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과거 3년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 변화

(단위: %)

구분	악화	현상유지	개선	계
바디	2.1	70.8	27.1	100.0
동력발생장치	6.4	61.7	31.9	100.0
동력전달장치	3.3	76.7	20.0	100.0
제동장치	5.6	88.9	5.6	100.0
조향장치	16.7	66.7	16.7	100.0
의장	1.5	79.4	19.1	100.0
전장	0.0	82.0	18.0	100.0
기타	1.7	83.1	15.3	100.0
전체	2.8	76.7	20.6	100.0

과거 3년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는 현상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7%,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표 28〉 향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 전망

(단위: %)

구분	악화	현상유지	개선	계
바디	0.0	22.9	77.1	100.0
동력발생장치	0.0	44.7	55.3	100.0
동력전달장치	0.0	36.7	63.3	100.0
제동장치	0.0	55.6	44.4	100.0
조향장치	0.0	50.0	50.0	100.0
의장	1.5	44.1	54.4	100.0
전장	2.0	42.0	56.0	100.0
기타	1.7	37.3	61.0	100.0
전체	0.9	39.6	59.5	100.0

그러나 향후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9.5%로 발주기업과 상생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발주기업으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자금지원	3.3
정보제공	33.7
인력, 교육지원	17.3
기술지원	7.8
마케팅 지원	22.9
생산관리 지원	4.3
장비지원	0.7
아무런 지원 없음	9.9
계	100.0

주: 총 326개의 기업에서 694개 복수응답 하였음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이 발주기업으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지원으로는 정보제공이 33.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지원(22.9%), 인력, 교육지원(17.3%) 순이었다.

〈표 30〉 발주기업으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단위: %)

구분	비율
자금지원	21.6
정보제공	6.8
인력, 교육지원	10.3
기술지원	18.1
마케팅 지원	3.8
생산관리 지원	21.1
장비지원	18.4
계	100.0

주: 총 326개의 기업에서 1012개 복수응답 하였음

그렇다면 발주기업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지원으로는 자금지원이 21.6%로 가장 많았고, 생산관리 지원(21.1%), 장비지원(18.4%) 순이었다.

특히 미스매치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이었고, 장비지원, 생산관리지원, 기술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주기업과 하청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시 자금지원, 장비지원 등에 충남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 생산제품의 납품가격 결정기준

(단위: %)

구분	비율
납품업체에서 정한 가격	11.4
납품업체와 협의 결정	80.1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8.6
계	100.0

하청기업의 생산제품 납품가격은 대부분 납품업체와 협의 결정한다는 응답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납품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납품하는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다만 앞의 분석에서 낮은 납품단가로 인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발주기업과 협의 시 납품기업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 완성차업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불만족	보통	만족	계
바디	8.3	47.9	43.8	100.0
동력발생장치	12.8	51.1	36.2	100.0
동력전달장치	13.3	40.0	46.7	100.0
제동장치	11.1	61.1	27.8	100.0
조향장치	16.7	50.0	33.3	100.0
의장	17.7	55.9	26.5	100.0
전장	24.0	58.0	18.0	100.0
기타	17.0	40.7	42.4	100.0
전체	15.6	50.3	34.1	100.0

완성체업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불만족 15.6%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33〉 지자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
바디	2.1	31.3	64.6	2.1	100.0
동력발생장치	2.1	46.8	51.1	0.0	100.0
동력전달장치	3.3	36.7	60.0	0.0	100.0
제동장치	0.0	50.0	50.0	0.0	100.0
조향장치	0.0	50.0	50.0	0.0	100.0
의장	4.4	42.7	52.9	0.0	100.0
전장	2.0	62.0	36.0	0.0	100.0
기타	10.2	30.5	59.3	0.0	100.0
전체	4.0	42.3	53.4	0.3	100.0

그러나 지자체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완성차업체보다는 충남의 정책적 노력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2차벤더 중심의 산업구조로 수평·협력적인 관계보다는 경쟁·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발주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요구와 촉박한 납품기일 강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협의 하에 납품가격이 결정되고 있고 향후 발주기업과 하청기업의 협력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아직까지 상위벤더인 발주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등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향후 생산관리, 장비지원 등 생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충남의 동반성장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 분석

1) 납품 및 조달구조

〈표 34〉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납품비중 및 납품액

(단위: %, 억)

시도	납품비율	납품액
서울	0.3	714
경기	17.1	36,091
인천	1.0	2,141
대구	0.5	1,071
부산	0.5	1,136
광주	0.8	1,655
울산	2.4	5,126
대전	1.4	2,952
충남	69.9	147,899
충북	1.7	3,699
경남	0.4	844
경북	1.4	3,050
전남	0.2	422
전북	1.5	3,115
강원	0.4	844
세종	0.4	779
계	100.0	211,534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충남 내에 69.9%를 납품하고 있으며, 경기(17.1%), 울산(2.4%)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액을 추정해보면, 충남 내 납품액은 14.8조, 경기도로의 납품액은 3.6조, 울산으로의 납품액은 0.5조 정도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 납품액은 21.2조이며, 지역 외 납품액은 6.4조로 추산된다.

〈표 35〉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군별 납품비중 및 납품액

(단위: %, 억)

시도	납품비율	납품액
천안	17.3	25,514
공주	0.8	1,189
보령	3.6	5,255
아산	55.4	81,868
서산	14.1	20,877
논산	1.0	1,427
계룡	0.1	166
금산	0.2	285
부여	0.1	166
서천	0.1	119
청양	0.1	143
홍성	0.3	404
예산	0.4	642
태안	0.1	143
당진	6.6	9,701
계	100.0	147,899

충남 내 납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지역으로의 납품비중이 55.4%로 가장 높았고, 천안(17.3%), 서산(14.1%), 당진(6.6%) 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액을 추정해보면, 아산지역 납품액은 8.2조, 천안지역 납품액은 2.6조, 서산지역 납품액은 2.1조 정도로 추산된다.

〈표 36〉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조달비중 및 조달액

(단위: %, 억)

시도	조달비율	지불액
서울	0.6	431
경기	27.2	20,130
인천	3.0	2,234
대구	1.5	1,111
부산	0.5	340
광주	0.7	522
울산	1.1	805
대전	2.0	1,497
충남	50.7	37,464
충북	6.4	4,729
경남	1.0	726
경북	2.2	1,656
전남	0.3	249
전북	2.1	1,520
강원	0.4	272
세종	0.3	249
계	100.0	73,934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충남 내에서 50.7%를 조달받고 있으며, 경기(27.2%), 충북(6.4%)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불액을 추정해보면, 충남 내 지불액은 3.7조, 경기도로 지불액은 2.0조, 충북으로 지불액은 0.5조 정도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 지불액은 7.4조이며, 지역 외 지불액은 3.6조로 추산된다.

〈표 37〉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군별 조달비중 및 지불액

(단위: %, 억)

시도	조달비율	지불액
천안	29.5	11,048
공주	0.4	147
보령	4.7	1,778
아산	37.3	13,960
서산	15.0	5,626
논산	1.1	414
계룡	0.0	0
금산	0.0	13
부여	0.0	13
서천	0.3	115
청양	0.0	0
홍성	0.0	13
예산	1.7	650
태안	0.4	140
당진	9.5	3,549
계	100.0	37,464

충남 내 조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지역에서 조달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천안(29.5%), 서산(15.0%), 당진(9.5%) 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불액을 추정해보면, 아산지역으로 지불액은 1.4조, 천안지역으로 지불액은 1.1조, 서산지역으로 지불액은 0.6조 정도로 추산된다.

2) 집적의 필요성과 영향

〈표 38〉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의 필요성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바디	6.3	12.5	62.5	18.8	100.0
동력발생장치	4.3	21.3	70.2	4.3	100.0
동력전달장치	0.0	23.3	73.3	3.3	100.0
제동장치	0.0	11.1	88.9	0.0	100.0
조향장치	16.7	0.0	66.7	16.7	100.0
의장	2.9	16.2	70.6	10.3	100.0
전장	0.0	14.0	62.0	24.0	100.0
기타	6.8	22.0	61.0	10.2	100.0
전체	3.7	17.2	67.5	11.7	100.0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에 대해 67.5%의 기업이 그렇다, 11.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집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집적이 강화될 경우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부정적	영향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
바디	2.1	22.9	64.6	10.4	100.0
동력발생장치	2.1	40.4	53.2	4.3	100.0
동력전달장치	0.0	33.3	63.3	3.3	100.0
제동장치	0.0	11.1	83.3	5.6	100.0
조향장치	0.0	33.3	50.0	16.7	100.0
의장	1.5	13.2	80.9	4.4	100.0
전장	0.0	12.0	64.0	24.0	100.0
기타	1.7	30.5	61.0	6.8	100.0
전체	1.2	23.6	66.3	8.9	100.0

아울러 부품산업간 집적이 강화될 경우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66.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8.9%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표 4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수준 전망

(단위: %)

	낮아짐	현수준유지	높아짐	매우 높아짐	계
바디	2.1	22.9	64.6	10.4	100.0
동력발생장치	2.1	40.4	53.2	4.3	100.0
동력전달장치	0.0	33.3	63.3	3.3	100.0
제동장치	0.0	11.1	83.3	5.6	100.0
조향장치	0.0	33.3	50.0	16.7	100.0
의장	1.5	13.2	80.9	4.4	100.0
전장	0.0	12.0	64.0	24.0	100.0
기타	1.7	30.5	61.0	6.8	100.0
전체	8.6	18.4	65.6	7.4	100.0

향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65.6%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7.4%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충남은 이와 같은 기업의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41〉 집적수준이 높아진다고 전망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완성차업체와의 접근성 양호	26.7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10.5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10.9
수도권과의 접근성 양호	15.8
해외시장과의 수출·수입상 유리	6.3
지역 내 및 주변지역에 연관 산업 발달	29.8
계	100.0

향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수준이 높아진다고 전망한 이유로는 29.8%의 기업이 지역 내 및 주변지역에 연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완성차업체와의 접근성 향호라고 응답한 비중도 26.7%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지역내 입지와 연관산업의 발달은 관련 기업의 집적수준을 높이는 주요요인으로 충남은 대기업의 유치와 연관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표 42〉 집적수준이 낮아진다고 전망한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수도권 규제완화	10.7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미흡	44.6
경기불황으로 인한 폐업	23.2
타시도 대비 불리한 정주환경	12.5
타시도 대비 불리한 경영환경	7.1
기타	1.8
계	100.0

향후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수준이 낮아진다고 전망한 이유로는 44.8%의 기업이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 지원미흡을 이유로 들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폐업이 23.2%로 다음 순 이었다.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집적적인 기업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3〉 인근지역 자동차부품산업간 연계발전전략의 필요성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바디	0.0	18.8	68.8	12.5	100.0
동력발생장치	0.0	25.5	68.1	6.4	100.0
동력전달장치	0.0	16.7	83.3	0.0	100.0
제동장치	0.0	11.1	83.3	5.6	100.0
조향장치	0.0	16.7	83.3	0.0	100.0
의장	0.0	16.2	80.9	2.9	100.0
전장	2.0	8.0	74.0	16.0	100.0
기타	0.0	13.6	74.6	11.9	100.0
전체	0.3	16.0	75.5	8.3	100.0

인근지역인 경기, 대전, 충북, 세종, 전북과 자동차부품산업간 연계발전전략 필요성에는 75.5%의 기업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3%의 기업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충남이 울산, 경북, 경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 충남과 연계협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

(단위: %)

	경기	대전	충북	세종	전북	계
바디	14.6	12.5	66.7	2.1	4.2	100.0
동력발생장치	48.9	8.5	36.2	6.4	0.0	100.0
동력전달장치	13.3	20.0	50.0	13.3	3.3	100.0
제동장치	44.4	0.0	27.8	27.8	0.0	100.0
조향장치	33.3	16.7	33.3	16.7	0.0	100.0
의장	41.2	10.3	41.2	2.9	4.4	100.0
전장	46.0	8.0	32.0	14.0	0.0	100.0
기타	15.3	10.2	67.8	6.8	0.0	100.0
전체	31.9	10.4	47.6	8.3	1.8	100.0

충남과 연계협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충북이 47.6%로 가장 높았고, 경기(31.9%), 대전(10.4%) 순이었다. 그러나 동력발생장치, 제동장치, 전장부품 생산업체의 경우는 경기와의 연계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하면, 충남은 경기와 울산으로 납품이 활발하고, 경기와 충북으로부터 조달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는 아산, 천안, 서산, 당진에서 납품 및 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충남 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집적이 강화될수록 경영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직접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완성차업체와 연관산업의 발달이기 때문에 충남은 연관 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산업육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충남의 지원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집적적인 기업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남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특히 충북, 경기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판매구조

〈표 45〉 총매출액 중 내수와 수출비중

(단위: %)

	내수	수출	계
바디	91.4	8.6	100.0
동력발생장치	88.9	11.1	100.0
동력전달장치	92.0	8.0	100.0
제동장치	95.8	4.2	100.0
조향장치	93.3	6.7	100.0
의장	96.7	3.3	100.0
전장	89.9	10.1	100.0
기타	94.9	5.1	100.0
전체	92.9	7.1	100.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매출액 중 내수의 비중이 92.9%로 나타났고, 수출은 7.1%에 불과하였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여겨진다.

〈표 46〉 내수 중 시장판매 비중

(단위: %)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 납품	시장판매	계
바디	32.5	58.8	8.8	100.0
동력발생장치	14.3	83.3	2.4	100.0
동력전달장치	92.0	7.7	0.3	100.0
제동장치	14.4	83.3	2.2	100.0
조향장치	3.3	93.3	3.3	100.0
의장	15.4	81.8	2.8	100.0
전장	13.2	83.2	3.6	100.0
기타	15.1	80.7	4.2	100.0
전체	16.4	79.9	3.8	100.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수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고, 시장 판매의 비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발주업체와 부품업체 간 종속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장판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47〉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자체브랜드 소유여부

(단위: %)

	자체브랜드 있음	자체브랜드 없음	계
바디	29.2	70.8	100.0
동력발생장치	19.2	80.9	100.0
동력전달장치	6.7	93.3	100.0
제동장치	11.1	88.9	100.0
조향장치	16.7	83.3	100.0
의장	13.2	86.8	100.0
전장	16.0	84.0	100.0
기타	20.3	79.7	100.0
전체	17.5	82.5	100.0

시장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자체브랜드의 개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장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납품구조와 이로 인한 자체브랜드의 부재 때문이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중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7.5%에 불과하였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은 일부 완성차업체에 독과점 되어 있다. 자동차부품기업이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국내 완성차업체 납품 비중

(단위: %)

완성차 업체	비율
현대	46.2
기아	26.7
쉐보레	7.4
르노삼성	2.3
쌍용	3.7
대우버스	1.8
타타대우	1.6
기타	10.3
계	100.0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 비중은 현대가 46.2%로 가장 높았고, 기아(26.7%)가 다음 순 이었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아의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9〉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주요수출지역

(단위: %)

수출 지역	비율
중국	38.6
미국·북미	26.6
일본	11.1
유럽	12.3
동남아	9.9
기타	1.6
계	100.0

수출을 하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38.6%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미국·북미(26.6%), 유럽(1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큰 폭의 대중국 교역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충남은 환황해권 시대 급격한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산·당진항의 개발에 노력하고, 아울러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대중국 수입기업을 위한 별도의 수출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50〉 한·중 FTA가 자동차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
바디	0.0	8.3	20.8	66.7	4.2	100.0
동력발생장치	2.1	12.8	36.2	42.6	6.4	100.0
동력전달장치	0.0	20.0	20.0	56.7	3.3	100.0
제동장치	0.0	22.2	33.3	44.4	0.0	100.0
조향장치	0.0	16.7	33.3	50.0	0.0	100.0
의장	4.4	19.1	30.9	45.6	0.0	100.0
전장	6.0	26.0	32.0	34.0	2.0	100.0
기타	1.7	1.7	28.8	62.7	5.1	100.0
전체	2.5	14.7	29.1	50.6	3.1	100.0

한·중 FTA의 경우,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0.6%가 한·중 FTA가 자동차부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1%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나타나 부정보다는 긍정적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한·중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수출보다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로의 납품비중이 46.2%, 기아자동차로의 납품 비중이 26.7%에 달해 이 두 완성차업체의 어려움은 충남 자동차부품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체브랜드의 비중이 17.5%에 불과하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어서, 시장 판매의 비율은 3.8%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 종속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자동차부품기업의 자체브랜드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을 하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38.6%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한·중 FTA 체결로 인해 큰 폭의 대중국 교역확대와 기업이윤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산·당진항 등 환황해권 항만의 융·복합화와 교통 인프라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한·중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1.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

본 장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 충남이 육성해야 할 신기술 트렌드

(단위: %)

	친환경	고연비	경량화	전자화및 IT융합	표준화및 모듈화	계
바디	20.8	56.3	14.6	4.2	4.2	100.0
동력발생장치	17.0	61.7	10.6	8.5	2.1	100.0
동력전달장치	26.7	46.7	13.3	10.0	3.3	100.0
제동장치	22.2	50.0	22.2	5.6	0.0	100.0
조향장치	50.0	33.3	16.7	0.0	0.0	100.0
의장	30.9	39.7	16.2	8.8	4.4	100.0
전장	38.0	26.0	22.0	6.0	8.0	100.0
기타	32.2	44.1	18.6	5.1	0.0	100.0
전체	28.2	45.1	16.6	6.8	3.4	100.0

향후 충남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기술 트렌드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45.1%가 고연비(연비 개선 기술)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친환경(신에너지 동력 및 인프라)이라고 응답하였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유가가 급등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연비, 경량화를 미래 신기술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등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친환경도 주요한 미래 트렌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단위: %)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바디	0.0	0.0	39.6	60.4	0.0	100.0
동력발생장치	2.1	10.6	31.9	51.1	4.3	100.0
동력전달장치	0.0	10.0	30.0	60.0	0.0	100.0
제동장치	0.0	16.7	44.4	38.9	0.0	100.0
조향장치	0.0	16.7	50.0	33.3	0.0	100.0
의장	0.0	16.2	39.7	41.2	2.9	100.0
전장	2.0	12.0	42.0	44.0	0.0	100.0
기타	0.0	5.1	44.1	49.2	1.7	100.0
전체	0.6	9.8	39.3	48.8	1.5	100.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0.3%가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개발에 정보수집, 기술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

(단위: %)

분 야	비 율
전기자동차	19.6
가솔린하이브리드	36.8
디젤하이브리드	10.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8.1
수소연료전지	14.4
클린디젤	0.6
계	100.0

향후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분야로는 36.8%의 기업이 가솔린하이브리드라고 응답하였으며, 전기자동차(19.6%), 플러그인하이브리드(18.1%)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14.4%로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54〉 미래 지능형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단위: %)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바디	0.0	0.0	41.7	58.3	0.0	100.0
동력발생장치	2.1	10.6	34.0	48.9	4.3	100.0
동력전달장치	0.0	10.0	33.3	56.7	0.0	100.0
제동장치	0.0	16.7	27.8	55.6	0.0	100.0
조향장치	0.0	16.7	33.3	50.0	0.0	100.0
의장	0.0	17.7	38.2	42.7	1.5	100.0
전장	0.0	14.0	38.0	46.0	2.0	100.0
기타	0.0	5.1	42.4	52.5	0.0	100.0
전체	0.3	10.4	37.7	50.3	1.2	100.0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 분야에서도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1.5%만이 정보 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가장 육성해야 하는 지능형 자동차 분야

(단위: %)

분 야	비 율
자율주행	10.1
자동주차	20.9
지능제어(자동충돌회피)	44.5
차량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24.5
계	100.0

향후 가장 육성해야 하는 지능형 자동차분야로는 44.8%의 기업이 지능제어(자동충돌회피)라고 응답하였으며, 차량 ICT(정보통신기술) 융합(24.5%), 자동주차(20.9%)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에서 향후 육성해야하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로 지능제어시스템(자동충돌회피)을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운전자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주차도 향후 지속적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분 야	비 율
노사관계 개선, 제품혁신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자구노력	19.9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사업 강화	26.4
부품개발을 위한 부품업체간 파트너십 강화	24.4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	29.3
계	100.0

견실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9.3%의 기업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사업 강화(26.4%), 부품개발을 위한 부품업체간 파트너십 강화(2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남은 ‘충남 TP 자동차센터’를 중심으로 장비지원 등 기업의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 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대체자동차부품시장 전망

〈표 57〉 대체부품시장 전망

(단위: %)

	현상태	성장	매우성장	계
바디	0.0	95.8	4.2	100.0
동력발생장치	2.1	85.1	12.8	100.0
동력전달장치	0.0	96.7	3.3	100.0
제동장치	0.0	94.4	5.6	100.0
조향장치	16.7	83.3	0.0	100.0
의장	7.4	80.9	11.8	100.0
전장	4.0	74.0	22.0	100.0
기타	3.4	93.2	3.4	100.0
전체	3.4	87.1	9.5	100.0

대체부품인증제는 품질을 인증한 대체부품을 시장에 공급, 기존 OEM(순정) 부품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고 부품제조사들이 자기 브랜드로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인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자동차부품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에서조차 대체자동차부품산업은 생소하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EU의 경우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는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설정하여 자동차부품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대체부품 사용율은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향후 대체자동차부품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겠지만,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판로가 되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87.1%가 향후 대체부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5%는 매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58〉 대체부품생산시설 투자계획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바디	2.1	27.1	68.8	2.1	100.0
동력발생장치	10.6	48.9	38.3	2.1	100.0
동력전달장치	6.7	56.7	36.7	0.0	100.0
제동장치	11.1	55.6	33.3	0.0	100.0
조향장치	16.7	50.0	33.3	0.0	100.0
의장	13.2	42.7	41.2	2.9	100.0
전장	8.0	44.0	46.0	2.0	100.0
기타	3.4	47.5	47.5	1.7	100.0
전체	8.0	44.5	45.7	1.8	100.0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47.5%가 향후 대체자동차부품생산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자동차부품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9〉 대체부품생산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필요성

(단위: %)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바디	0.0	81.3	18.8	100.0
동력발생장치	12.8	76.6	10.6	100.0
동력전달장치	26.7	70.0	3.3	100.0
제동장치	16.7	72.2	11.1	100.0
조향장치	16.7	83.3	0.0	100.0
의장	10.3	77.9	11.8	100.0
전장	6.0	70.0	24.0	100.0
기타	15.3	81.4	3.4	100.0
전체	11.4	76.7	12.0	100.0

대체부품생산을 위한 집적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기업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충남은 지역 내 대체자동차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충남에서 기 조성한 산업단지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남은 지역 내 완성차업체(현대, 기아)가 입주해 있고,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또한 활용가능 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여 타 지역에서 대체 자동차부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R&D시설 등이 포함된 대체자동차부품 지원센터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체부품산업이 충남에서 활성화 될 경우 자동차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대체부품수요가 충분한 중국 수출의 전지기지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하면,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고연비, 경량화, 친환경을 주요한 미래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분야로는 36.8%의 기업이 가솔린하이브리드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육성해야 하는 지능형

자동차분야로는 44.8%의 기업이 지능제어(자동충돌회피)라고 응답하였다. 충남의 자동차부품기업은 미래신기술 보다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육성을 희망하고 있었고, 편리성보다는 안전을 높이는 기술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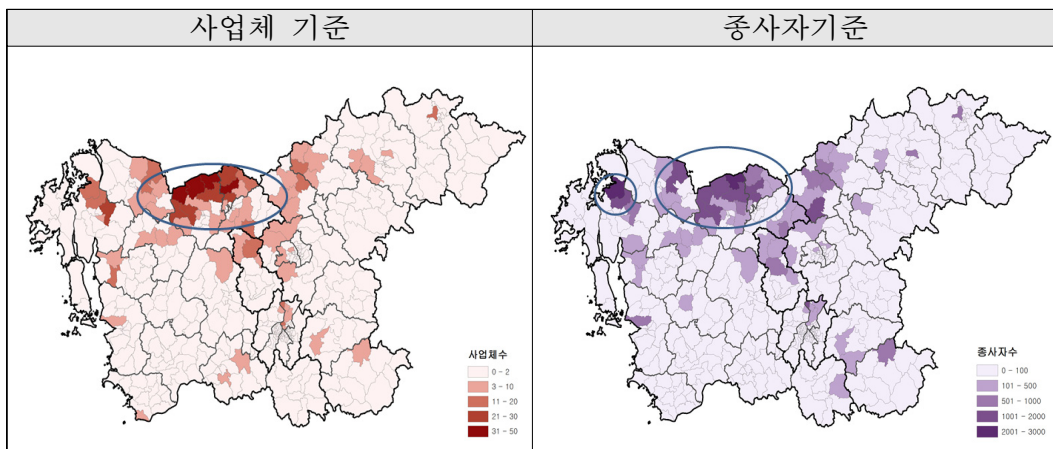
견실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9.3%의 기업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라고 응답하였다. 충남은 '충남 TP 자동차센터'를 중심으로 장비지원 등 기업의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및 시사점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남서부와 충청 북부 그리고 영남 내륙 대구광역시 주변 및 남동해안 지역으로 두 권역으로 분산되어 집중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전북 북부와 광주광역시 서부, 충북 북부에 편재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기준으로도 사업체 기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수도권 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이 보다 강하게 연계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동부와 경남 해안 일대의 집중도가 더욱 뚜렷하였다.

〔그림 41〕 충청권 자동차부품산업 분포



충청권으로 살펴보면 충청 지방의 주요 핵심지역은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와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직산읍) 일대의 비중이 높고, 충남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를 중심으로 광역화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아산시(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일대와 천안시 서북구(직산읍, 성환읍) 일대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고, 서산·당진까지 넓게 분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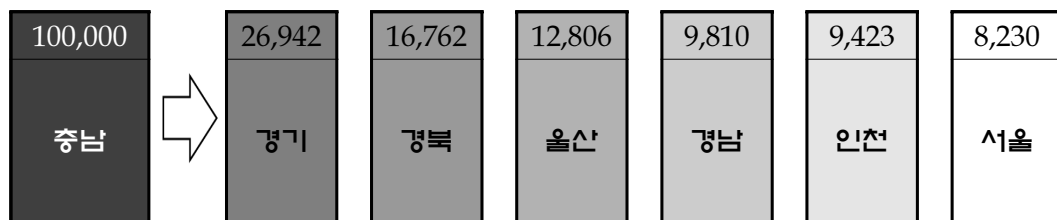
지역적으로 볼 때 자동차부품산업은 경기·충청권, 대구·경상권을 중심으로 경쟁관계에 있어, 충남이 대형 국책사업이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기, 충북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남이 전기장치 관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북과의 연계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력과 기반 시설, 수출기반 여건이 좋은 아산,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향후 부품기업의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다.

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연관효과의 시사점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한 분석결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1,000억이 투입된다면 그로인한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유발액은 2,324억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572억, 수입유발액은 158억, 취업유발인원은 1,178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투자 시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울산, 경북, 경남, 인천, 대구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업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남 전산업에서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경기, 경북, 울산,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충남 지역경제만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울산까지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그만큼 충남이 타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향후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함 있어 충남과 경쟁관계 구도보다는 연계·협력 구도로 끌여가는 것이 두 지역이 윈-윈(win-win)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전후방연쇄효과의 시사점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78개 부문으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은 철강1차제품, 플라스틱제품, 선철 및 조강, 석유제품, 금속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철강1차제품¹²⁾, 전남의 철강1차제품,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선철 및 조강¹³⁾, 충남의 철강1차제품이 주요 후방산업이었다. 또한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수리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서비스¹⁴⁾, 도로운송을 포함한 육상운송¹⁵⁾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대전, 서울의 기타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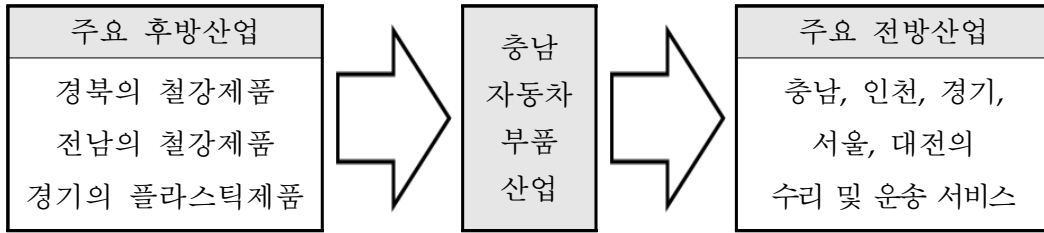
12) 철강1차제품은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주단강품, 기타 철강1차제품으로 구분

13) 선철 및 조강은 선철, 합금철, 조강으로 구분

14) 기타서비스는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로 구분

15) 육상운송은 철도운송, 도로운송, 택배로 구분

〈표 60〉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전후방산업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168개 부문으로 살펴본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후방산업은 플라스틱제품, 열간압연강재, 조강, 석유화학기초제품, 기타금속제품,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플라스틱제품, 경북의 열간압연강재, 충남의 플라스틱제품, 전남의 열간압연강재, 경북의 조강 등이 주요 후방산업이었다. 또한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전방산업은 수리서비스, 택배, 도로운송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 인천, 경기, 서울, 대전의 수리서비스가 주요 전방산업이었다.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은 철강 및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 전기기계 및 장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북, 전남의 철강산업, 경기의 플라스틱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며, 아울러 서울, 대전, 경기, 인천 등 인근 대도시의 자동차수리서비스와 택배 등 육상운송 서비스에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철강 및 금속분야에서는 전남과, 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경기와 연계·협력하여 R&D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의 자동차 수리업과 운송서비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충남을 대체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 중심지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집적도의 시사점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입지계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3.3) 다음 순이며, 그 차이가 0.1에 불과하였으며, 자동차부품산업을 부품 영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은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와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에서 입지계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충남은 모든 세부 부품영역에서 모두 3위권에 드는 유일한 시도로서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도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양중, 2014).

〈표 61〉 시도별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계수 순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동차부품 산업							1					2			3	
자동차 엔진용 부품								1				3				2
자동차 차체용 부품							1					3			2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3					1				2
자동차용 전기장치											1	3			2	
기타 자동차 부품							3					1				2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세부 영역별로 2006년과 2012년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이 충남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충남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가 산업구조와 입지여건이 모두 양호하여 직접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성장 산업이었으며, 자동차용 전기장치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충남의 4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해온 충남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남 TP 자동차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김양중, 2014).

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도급구조의 시사점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은 1차벤더가 19.6%, 2차벤더가 50.3%, 3차벤더가 30.1%로 2차벤더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청기업이 발주기업과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납품단가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납품 기일촉박(27.6%), 대금결제 장기화(2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납품 단가는 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력사업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2> 발주기업과 하청기업 간 지원 미스매칭

구분	받고 있는 지원	받고 싶은 지원	미스매칭 여부	지원방향
자금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정보제공	높음	낮음	미스매칭	지원축소
인력, 교육지원	높음	높음	매칭	지원유지
기술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마케팅 지원	높음	낮음	미스매칭	지원축소
생산관리 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장비지원	낮음	높음	미스매칭	지원확대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이 발주기업으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지원으로는 정보제공이 33.7%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지원(22.9%), 인력, 교육지원(17.3%) 순이었다. 그러나 발주기업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지원으로는 자금지원이 21.6%로 가장 많았고, 생산 관리 지원(21.1%), 장비지원(18.4%) 순이었다.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자금지원, 장비지원, 생산관리지원, 기술지원의 경우 충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6.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조달 및 납품구조의 시사점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충남 내에 69.9%를 납품하고 있으며, 경기(17.1%), 울산(2.4%)순이었다. 아울러 충남 내에서 50.7%를 조달받고 있으며, 경기(27.2%), 충북(6.4%)순이었다. 지역 내에서는 아산, 천안, 서산, 당진에서 납품 및 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63〉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도별 납품 및 조달비중

(단위: %, 억)

시도	납품		조달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서울	0.3	714	0.6	431
경기	17.1	36,091	27.2	20,130
인천	1.0	2,141	3.0	2,234
대구	0.5	1,071	1.5	1,111
부산	0.5	1,136	0.5	340
광주	0.8	1,655	0.7	522
울산	2.4	5,126	1.1	805
대전	1.4	2,952	2.0	1,497
충남	69.9	147,899	50.7	37,464
충북	1.7	3,699	6.4	4,729
경남	0.4	844	1.0	726
경북	1.4	3,050	2.2	1,656
전남	0.2	422	0.3	249
전북	1.5	3,115	2.1	1,520
강원	0.4	844	0.4	272
세종	0.4	779	0.3	249
계	100	211,534	100	73,934

주: 납품 및 조달금액은 설문조사 추정 값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의 충남 내 집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접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완성차업체와의 접근성, 지역 및 주변 연관 산업의 발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들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충남 인근지역인 경기, 대전, 충북, 세종, 전북과 자동차부품 산업간 연계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계협력 우선지역으로는 충북,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세종 두 지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볼 수 있어 충남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이 울산, 경북, 경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판매구조의 시사점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총매출액 중 내수의 비중이 92.9%로 나타났고, 수출은 7.1%에 불과하였다.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 비중은 현대가 46.2%로 가장 높았고, 기아(26.7%)가 다음 순이었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기아의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들은 내수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 등 발주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의 납품구조가 지배적이고, 자체 시장 판매의 비율도 3.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시장구조는 발주업체와 납품 업체간 종속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장판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데, 시장판매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자체브랜드의 개발이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중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7.5%에 불과하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은 일부 완성차업체에 독과점 되어 있다. 자동차부품기업이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 안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8.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인식의 시사점

향후 충남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기술 트렌드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45.1%가 고연비(연비 개선 기술)라고 응답하였고, 28.2%가 친환경(신에너지 동력 및 인프라)이라고 응답하였다.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유가가 급등하는 시대에 발맞춰 고연비, 경량화를 미래 신기술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등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친환경도 주요한 미래 트렌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미래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한 대응도

(단위: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환경	0.6	9.8	39.3	48.8	1.5
지능형	0.3	10.4	37.7	50.3	1.2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0.3%가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개발에 정보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 분야에서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51.5%가 정보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정도의 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육성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분야로는 36.8%의 기업이 가솔린하이브리드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능형 자동차분야로는 44.8%의 기업이 지능제어(자동충돌회피)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기업에서 향후 육성해야하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로 지능제어시스템(자동충돌회피)을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겨지며, 운전자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주차도 향후 지속적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실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9.3%의 기업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사업 강화(26.4%), 부품개발을 위한 부품업체간 파트너십 강화(24.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남은 ‘충남 TP 자동차센터’를 중심으로 장비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사업의 발굴 및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다루면서도, 타시도와의 비교를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예산상의 문제로 충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통계 데이터 분석의 경우도 시간상의 문제로 타 시도까지는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인 생태계의 모습은 다양한 연구주제와 함께 다음 연구로 남겨둔다. 또한 몇 개 자동차부품기업을 인터뷰하였지만 연구의 특성상 그 내용을 본문에 담지는 못하였다. 보다 자세한 인터뷰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특정 주제 하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박경(2011), '충남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산업 계층 분석 및 협력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김광민(2013), '충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충북본부
- 김석중(2012), '강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양중(201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덕배·김광민(2013), '원주·충주간 자동차부품산업 공동발전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충북본부
- 조철(2007), '차세대 자동차의 2020 비전과 전략',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2013), '2013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 충남 TP 자동차센터(2012), '충남 산업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분석'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06), '대전·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 한국자동차공업협회(2011), '2012년 자동차산업 전망',

[부 록]
설 문 지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남 소재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생태계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초 생태계를 파악하여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개별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의: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김양중 책임연구원
(041-840-1163)

Q

기초현황

※ 설문은 작년(2013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Q0. 귀사의 주소지는?(조사원이 기입)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Q1. 귀사의 2013년 총인원, 총매출액,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자동차부품제조업 세세코드		총인원()명	
		연구직()명	
		생산직()명	
		사무직()명	
		총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총 매출액의 ()%
①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②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③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④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⑤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Q2. 귀사가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9개 분야로 구분한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바디 ② 동력발생장치 ③ 동력전달장치
 ④ 제동장치 ⑤ 현가장치 ⑥ 조향장치
 ⑦ 의장(내외장) ⑧ 전장(전기장치)
 ⑨ 기타()

도급 구조

A1. 귀사의 도급구조상 단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1차 벤더
- ② 2차 벤더
- ③ 3차 벤더 이하



A2. 귀사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도급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독립적인 관계	경쟁·대립적인 관계	수평·협력적인 관계	지배종속적인 관계

A3. 귀사가 발주기업과 거래 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 ① 낮은 납품단가
- ② 대금결제 장기화
- ③ 납품기일촉박
- ④ 무분별한 거래선 변경
- ⑤ 계약기간 단기화
- ⑥ 납품커미션 또는 접대요구
- ⑦ 구두계약 등 서면계약 미실시
- ⑧ 현금이 아닌 어음을 통한 결제
- ⑨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⑩ 부당한 경영간섭
- ⑪ 기타()

A4. 귀사는 발주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과거 3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악화	악화	현상유지	개선	매우 개선

B**납품 및 조달 구조**

◎ 다음은 납품구조 조사입니다.

B1. 귀사가 국내업체에 대해 납품하는 물품의 시도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충남지역으로 납품이 있다면 충남 내 시군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도	비중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부산	%
광주	%
울산	%
대전	%
충남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강원	%
세종	%
계	100%

충남	비중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시	%
	100%

B2. 그렇다면 귀사가 2013년 납품하고 지불받은 총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억

◎ 다음은 조달구조 조사입니다.

B3. 귀사가 국내업체로부터 조달받는 물품의 시도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충남지역으로부터 조달이 있다면 충남 내 시군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도	비중	충남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부여군	%
충북	%	서천군	%
경남	%	청양군	%
경북	%	홍성군	%
전남	%	예산군	%
전북	%	태안군	%
강원	%	당진시	%
세종	%		
계	100%		100%

B4. 그렇다면 귀사가 2013년 조달받고 지불한 총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억

B5. 귀사는 협력업체의 충남 지역 내 집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6. 귀사는 충남지역 내 자동차부품산업간 집적이 강화될 경우 귀사의 경영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나쁜 영향	나쁜 영향	영향 없음	좋은 영향	매우 좋은 영향

C

판매 구조

C1. 귀사의 2013년 총매출액 중 내수와 수출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수	수출	계
%	%	100%

C2. 그렇다면 내수의 경우 완성차업체납품과 부품제조업체납품 등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완성차 납품	부품제조업체 납품	시장판매	계
%	%	%	100%

C3.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이 있다면 총 납품액 중 업체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업체명	비율
현대	%
기아	%
쉐보레	%
르노삼성	%
쌍용	%
대우버스	%
타타대우	%
기타	%
계	100%

C4. 귀사는 납품 외 직접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5.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지역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	미국·북미	일본	유럽	동남아	기타	계
%	%	%	%	%	%	100%

C6. 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가 자동차부품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D

자동차 생태계 변화 인식

D1. 귀사는 다음 자동차산업의 신기술 트렌드 중 충남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신에너지 동력 및 인프라)
- ② 고연비(연비 개선 기술)
- ③ 경량화(대체소재 개발 및 가공)
- ④ 전자화 및 IT융합(자율주행, 제어기술, 차량 및 인프라 정보네트워크 등)
- ⑤ 표준화 및 모듈화(인터페이스 표준제정 등)
- ⑥ 기타 ()

D2. 자동차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친환경 자동차(그린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귀사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변화에 정보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D3. 귀사가 생각하기에 향후 가장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친환경 자동차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전기자동차 ② 가솔린 하이브리드
- ③ 디젤 하이브리드 ④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하이브리드)
- 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⑥ 클린디젤
- ⑦ 기타 ()

D4. 친환경 자동차와 더불어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 개발 또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귀사는 지능형 자동차 산업변화에 정보수집, 기술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① 노사관계 개선, 제품혁신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자구노력
- ②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사업 강화
- ③ 부품개발을 위한 부품업체간 파트너십 강화
- ④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강화
- ⑤ 기타(

대체부품인증제는 품질을 인증한 대체부품을 시장에 공급, 기존 OEM(순정)부품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고 부품제조사들이 자기 브랜드로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①	②	③
현 상태 유지	성장	매우 성장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 록]

자동차부품기업 기초통계

시군구	총사업체	엔진용 부품	차체용 부품	동력전달 장치	전기장치	기타부품
서울	165	20	16	35	16	78
부산	540	147	66	97	38	192
대구	596	151	92	74	68	211
인천	566	108	78	79	56	245
광주	210	25	93	18	9	65
대전	63	25	2	9	6	21
울산	406	75	166	35	11	119
세종	28	5	3	3	1	16
경기	1829	374	329	180	157	789
강원	47	9	2	1	3	32
충북	160	12	28	30	18	72
충남	567	65	141	64	28	269
전북	272	29	95	20	8	120
전남	36	4	18	3	1	10
경북	673	103	165	70	54	281
경남	1588	429	160	392	54	553
제주	0	0	0	0	0	0

〈전국 시도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

시군구	총종사자	엔진용 부품	차체용 부품	동력전달 장치	전기장치	기타부품
서울	884	125	56	137	146	420
부산	10,045	2,761	1,375	1,707	474	3,728
대구	17,894	3,505	3,118	2,689	1,340	7,242
인천	12,764	2,958	1,767	1,800	922	5,317
광주	6,091	615	2,743	132	155	2,446
대전	2,676	892	5	395	122	1,262
울산	18,256	2,083	9,580	2,009	383	4,201
세종	1,229	830	13	13	117	256
경기	49,631	12,395	8,787	3,760	4,478	20,211
강원	3,888	257	14	11	83	3,523
충북	8,783	676	1,343	1,269	1,788	3,707
충남	29,478	3,925	7,244	6,526	1,469	10,314
전북	9,973	942	2,680	442	459	5,450
전남	668	56	248	14	35	315
경북	25,941	2,675	9,717	2,434	3,063	8,052
경남	32,377	8,272	4,717	6,817	908	11,663
제주	0	0	0	0	0	0

〈 전국 시도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

시군구	총사업체	엔진용 부품	차체용 부품	동력전달 장치	전기장치	기타부품
서귀포시	0	0	0	0	0	0
제주시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거창군	0	0	0	0	0	0
함양군	0	0	0	0	0	0
산청군	1	0	0	0	0	1
하동군	0	0	0	0	0	0
남해군	0	0	0	0	0	0
고성군	1	0	0	0	0	1
창녕군	37	5	5	5	5	17
함안군	123	42	16	15	6	44
의령군	9	1	0	3	0	5
진해구	20	3	2	5	0	10
마산 회원구	133	32	9	40	3	49
마산 합포구	9	3	0	2	0	4
성산구	210	68	10	62	5	65
의창구	141	55	15	26	7	38
양산시	194	32	36	32	8	86
거제시	1	0	1	0	0	0
밀양시	22	4	6	2	0	10
김해시	456	155	51	59	18	173
사천시	46	4	6	21	0	15
통영시	0	0	0	0	0	0
진주시	185	25	3	120	2	35
울릉군	0	0	0	0	0	0
울진군	0	0	0	0	0	0
봉화군	1	0	0	0	0	1
예천군	0	0	0	0	0	0
칠곡군	59	12	14	9	3	21
성주군	36	6	7	4	1	18
고령군	42	14	3	1	4	20
청도군	1	0	0	0	1	0
영덕군	0	0	0	0	0	0
영양군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1)〉

청송군	0	0	0	0	0	0
의성군	0	0	0	0	0	0
군위군	2	0	1	0	0	1
경산시	141	20	33	16	13	59
문경시	3	0	0	1	1	1
상주시	5	0	0	0	2	3
영천시	56	7	22	3	3	21
영주시	0	0	0	0	0	0
구미시	32	2	7	4	2	17
안동시	0	0	0	0	0	0
김천시	27	6	4	1	0	16
경주시	260	36	73	31	22	98
북구	2	0	0	0	1	1
남구	6	0	1	0	1	4
신안군	0	0	0	0	0	0
진도군	0	0	0	0	0	0
완도군	0	0	0	0	0	0
장성군	6	0	2	0	1	3
영광군	0	0	0	0	0	0
함평군	2	0	2	0	0	0
무안군	1	0	1	0	0	0
영암군	0	0	0	0	0	0
해남군	0	0	0	0	0	0
강진군	0	0	0	0	0	0
장흥군	0	0	0	0	0	0
화순군	3	0	2	0	0	1
보성군	0	0	0	0	0	0
고흥군	0	0	0	0	0	0
구례군	0	0	0	0	0	0
곡성군	2	0	0	0	0	2
담양군	10	0	10	0	0	0
광양시	4	1	0	3	0	0
나주시	0	0	0	0	0	0
순천시	5	1	1	0	0	3
여수시	2	1	0	0	0	1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2)〉

목포시	1	1	0	0	0	0
부안군	0	0	0	0	0	0
고창군	1	0	0	0	0	1
순창군	0	0	0	0	0	0
임실군	0	0	0	0	0	0
장수군	0	0	0	0	0	0
무주군	0	0	0	0	0	0
진안군	0	0	0	0	0	0
완주군	59	7	34	2	0	16
김제시	36	7	9	5	0	15
남원시	3	0	2	0	0	1
정읍시	10	0	1	0	2	7
익산시	85	7	24	9	2	43
군산시	61	4	23	3	4	27
전주시 덕진구	16	4	2	1	0	9
전주시 완산구	1	0	0	0	0	1
태안군	0	0	0	0	0	0
예산군	18	0	9	3	0	6
홍성군	17	0	0	1	2	14
청양군	1	0	0	0	1	0
서천군	5	0	0	3	0	2
부여군	0	0	0	0	0	0
금산군	8	3	2	0	1	2
당진시	47	4	11	4	1	27
계룡시	0	0	0	0	0	0
논산시	12	2	2	0	2	6
서산시	67	1	18	32	0	16
아산시	220	34	69	11	6	100
보령시	11	0	2	4	0	5
공주시	5	1	2	0	0	2
천안시 서북구	120	18	21	4	9	68
천안시 동남구	36	2	5	2	6	21
증평군	1	0	1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3)〉

단양군	0	0	0	0	0	0
음성군	29	2	4	4	3	16
괴산군	2	0	0	0	0	2
진천군	35	1	9	8	2	15
영동군	7	5	0	0	0	2
옥천군	8	0	3	0	0	5
보은군	0	0	0	0	0	0
청원군	23	2	3	4	5	9
제천시	16	1	1	13	0	1
충주시	19	1	5	1	3	9
청주시 홍덕구	15	0	1	0	2	12
청주시 상당구	5	0	1	0	3	1
양양군	0	0	0	0	0	0
고성군	0	0	0	0	0	0
인제군	0	0	0	0	0	0
양구군	1	0	1	0	0	0
화천군	0	0	0	0	0	0
철원군	0	0	0	0	0	0
정선군	0	0	0	0	0	0
평창군	0	0	0	0	0	0
영월군	0	0	0	0	0	0
횡성군	3	1	0	0	1	1
홍천군	0	0	0	0	0	0
삼척시	0	0	0	0	0	0
속초시	0	0	0	0	0	0
태백시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강릉시	1	0	0	0	0	1
원주시	40	6	1	1	2	30
춘천시	2	2	0	0	0	0
양평군	2	0	0	1	0	1
가평군	0	0	0	0	0	0
연천군	0	0	0	0	0	0
여주군	3	1	0	0	1	1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4)〉

포천시	21	2	1	2	1	15
양주시	22	1	4	2	1	14
광주시	41	6	4	6	3	22
화성시	430	78	91	33	30	198
김포시	57	10	6	11	3	27
안성시	102	26	12	8	10	46
이천시	12	3	1	0	0	8
파주시	21	5	4	2	3	7
용인시 수지구	1	0	0	0	1	0
용인시 기흥구	9	1	1	0	2	5
용인시 처인구	22	2	3	0	1	16
하남시	10	3	0	0	1	6
의왕시	12	0	3	1	2	6
군포시	14	3	1	1	4	5
시흥시	401	111	71	51	17	151
오산시	6	1	1	0	1	3
남양주시	34	3	13	2	2	14
구리시	6	1	0	0	2	3
과천시	0	0	0	0	0	0
고양시 일산서구	0	0	0	0	0	0
고양시 일산동구	13	6	0	3	1	3
고양시 덕양구	3	0	1	1	0	1
안산시 단원구	228	39	42	18	16	113
안산시 상록구	27	7	5	3	4	8
동두천시	0	0	0	0	0	0
평택시	138	32	35	9	7	55
광명시	19	2	2	1	3	11
부천시 오정구	56	10	11	8	8	19
부천시 소사구	14	2	0	3	3	6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5)〉

부천시 원미구	15	3	1	0	3	8
안양시 동안구	18	5	4	2	4	3
안양시 만안구	29	5	6	5	9	4
의정부시	2	0	1	0	0	1
성남시 분당구	9	1	1	1	2	4
성남시 중원구	6	2	0	0	3	1
성남시 수정구	0	0	0	0	0	0
수원시 영통구	3	0	0	1	2	0
수원시 팔달구	4	0	1	0	0	3
수원시 권선구	17	3	3	4	6	1
수원시 장안구	2	0	0	1	1	0
세종시	28	5	3	3	1	16
울주군	165	31	57	19	7	51
북구	183	38	95	5	3	42
동구	3	0	0	2	0	1
남구	45	4	13	8	1	19
중구	10	2	1	1	0	6
대덕구	45	21	2	7	1	14
유성구	11	3	0	0	2	6
서구	1	0	0	0	1	0
중구	3	0	0	1	2	0
동구	3	1	0	1	0	1
광산구	178	21	81	16	9	51
북구	23	3	9	1	0	10
남구	2	1	0	1	0	0
서구	7	0	3	0	0	4
동구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6)〉

용진군	0	0	0	0	0	0
강화군	2	2	0	0	0	0
서구	148	29	19	15	10	75
계양구	30	4	6	2	4	14
부평구	57	5	11	5	5	31
남동구	235	43	35	38	26	93
연수구	14	3	0	2	3	6
남구	49	15	7	7	7	13
동구	28	5	0	10	1	12
중구	3	2	0	0	0	1
달성군	220	49	24	23	13	111
달서구	247	75	38	43	28	63
수성구	0	0	0	0	0	0
북구	63	12	21	2	9	19
남구	2	0	0	0	2	0
서구	42	8	6	4	9	15
동구	20	7	2	1	7	3
중구	2	0	1	1	0	0
기장군	75	28	21	6	2	18
사상구	201	59	17	40	6	79
수영구	2	0	0	0	2	0
연제구	1	0	0	0	0	1
강서구	108	26	16	19	6	41
금정구	44	7	5	18	4	10
사하구	60	22	2	8	4	24
해운대구	10	1	2	1	2	4
북구	9	0	0	0	7	2
남구	7	0	1	0	2	4
동래구	8	1	1	0	2	4
부산진구	11	2	0	5	1	3
영도구	3	1	0	0	0	2
동구	1	0	1	0	0	0
서구	0	0	0	0	0	0
중구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7)〉

강동구	1	0	0	0	0	1
송파구	1	0	0	0	1	0
강남구	2	0	0	0	0	2
서초구	5	0	1	1	0	3
관악구	4	1	0	0	2	1
동작구	2	0	0	0	0	2
영등포구	38	7	5	12	2	12
금천구	28	5	1	6	4	12
구로구	34	2	3	8	3	18
강서구	5	1	1	0	0	3
양천구	3	0	0	0	2	1
마포구	0	0	0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은평구	0	0	0	0	0	0
노원구	3	0	1	0	1	1
도봉구	2	0	0	0	1	1
강북구	0	0	0	0	0	0
성북구	1	0	0	0	0	1
중랑구	3	0	0	0	0	3
동대문구	12	2	1	2	0	7
광진구	3	0	0	1	0	2
성동구	13	1	3	5	0	4
용산구	1	0	0	0	0	1
중구	1	1	0	0	0	0
종로구	3	0	0	0	0	3

〈전국 시군구별 총 사업체 및 부문별 사업체수(8)〉

시군구	총종사자	엔진용 부품	차체용 부품	동력전달 장치	전기장치	기타부품
서귀포시	0	0	0	0	0	0
제주시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거창군	0	0	0	0	0	0
함양군	0	0	0	0	0	0
산청군	21	0	0	0	0	21
하동군	0	0	0	0	0	0
남해군	0	0	0	0	0	0
고성군	1	0	0	0	0	1
창녕군	1467	240	154	130	334	609
함안군	1377	505	182	236	53	401
의령군	225	29	0	129	0	67
진해구	380	133	54	42	0	151
마산 회원구	1369	281	42	619	16	411
마산 합포구	82	13	0	50	0	19
성산구	8284	3322	239	1388	29	3306
의창구	2258	1028	165	348	32	685
양산시	5011	364	2041	563	112	1931
거제시	1	0	1	0	0	0
밀양시	663	154	246	22	0	241
김해시	8083	1943	1496	1193	313	3138
사천시	1083	54	82	769	0	178
통영시	0	0	0	0	0	0
진주시	2072	206	15	1328	19	504
울릉군	0	0	0	0	0	0
울진군	0	0	0	0	0	0
봉화군	4	0	0	0	0	4
예천군	0	0	0	0	0	0
칠곡군	1427	248	309	470	56	344
성주군	794	101	178	99	16	400
고령군	624	150	17	110	58	289
청도군	40	0	0	0	40	0
영덕군	0	0	0	0	0	0
영양군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1)〉

청송군	0	0	0	0	0	0
의성군	0	0	0	0	0	0
군위군	5	0	1	0	0	4
경산시	6366	546	3153	295	166	2206
문경시	269	0	0	223	45	1
상주시	470	0	0	0	398	72
영천시	4074	229	2904	69	101	771
영주시	0	0	0	0	0	0
구미시	850	8	406	57	10	369
안동시	0	0	0	0	0	0
김천시	1479	288	293	19	0	879
경주시	9274	1105	2424	1092	2057	2596
북구	99	0	0	0	90	9
남구	166	0	32	0	26	108
신안군	0	0	0	0	0	0
진도군	0	0	0	0	0	0
완도군	0	0	0	0	0	0
장성군	86	0	22	0	35	29
영광군	0	0	0	0	0	0
함평군	37	0	37	0	0	0
무안군	6	0	6	0	0	0
영암군	0	0	0	0	0	0
해남군	0	0	0	0	0	0
강진군	0	0	0	0	0	0
장흥군	0	0	0	0	0	0
화순군	162	0	35	0	0	127
보성군	0	0	0	0	0	0
고흥군	0	0	0	0	0	0
구례군	0	0	0	0	0	0
곡성군	77	0	0	0	0	77
담양군	104	0	104	0	0	0
광양시	16	2	0	14	0	0
나주시	0	0	0	0	0	0
순천시	127	2	44	0	0	81
여수시	50	49	0	0	0	1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2)〉

목포시	3	3	0	0	0	0
부안군	0	0	0	0	0	0
고창군	17	0	0	0	0	17
순창군	0	0	0	0	0	0
임실군	0	0	0	0	0	0
장수군	0	0	0	0	0	0
무주군	0	0	0	0	0	0
진안군	0	0	0	0	0	0
완주군	2174	251	832	13	0	1078
김제시	1338	174	290	128	0	746
남원시	88	0	72	0	0	16
정읍시	442	0	61	0	56	325
익산시	3133	320	509	234	138	1932
군산시	2524	149	897	50	265	1163
전주시 덕진구	251	48	19	17	0	167
전주시 완산구	6	0	0	0	0	6
태안군	0	0	0	0	0	0
예산군	1168	0	748	275	0	145
홍성군	366	0	0	41	9	316
청양군	130	0	0	0	130	0
서천군	65	0	0	51	0	14
부여군	0	0	0	0	0	0
금산군	242	58	35	0	1	148
당진시	2196	591	281	106	185	1033
계룡시	0	0	0	0	0	0
논산시	75	16	5	0	9	45
서산시	5905	7	728	4247	0	923
아산시	11529	2672	3508	841	97	4411
보령시	1135	0	252	577	0	306
공주시	270	9	104	0	0	157
천안시 서북구	4578	561	946	281	994	1796
천안시 동남구	1819	11	637	107	44	1020
증평군	34	0	34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3)〉

단양군	0	0	0	0	0	0
음성군	1626	64	112	362	177	911
괴산군	231	0	0	0	0	231
진천군	2838	51	817	199	904	867
영동군	564	507	0	0	0	57
옥천군	249	0	47	0	0	202
보은군	0	0	0	0	0	0
청원군	1170	12	58	125	575	400
제천시	606	28	6	561	0	11
충주시	908	14	42	22	85	745
청주시 홍덕구	318	0	27	0	12	279
청주시 상당구	239	0	200	0	35	4
양양군	0	0	0	0	0	0
고성군	0	0	0	0	0	0
인제군	0	0	0	0	0	0
양구군	5	0	5	0	0	0
화천군	0	0	0	0	0	0
철원군	0	0	0	0	0	0
정선군	0	0	0	0	0	0
평창군	0	0	0	0	0	0
영월군	0	0	0	0	0	0
횡성군	223	56	0	0	22	145
홍천군	0	0	0	0	0	0
삼척시	0	0	0	0	0	0
속초시	0	0	0	0	0	0
태백시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강릉시	4	0	0	0	0	4
원주시	3604	149	9	11	61	3374
춘천시	52	52	0	0	0	0
양평군	9	0	0	7	0	2
가평군	0	0	0	0	0	0
연천군	0	0	0	0	0	0
여주군	77	39	0	0	33	5
포천시	310	82	3	20	21	184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4)〉

양주시	148	5	8	2	7	126
광주시	332	30	40	42	23	197
화성시	12511	2636	2713	853	945	5364
김포시	1317	93	39	158	32	995
안성시	3818	1143	218	122	236	2099
이천시	1289	63	58	0	0	1168
파주시	162	56	12	11	15	68
용인시 수지구	4	0	0	0	4	0
용인시 기흥구	101	2	9	0	6	84
용인시 처인구	221	77	14	0	6	124
하남시	59	8	0	0	2	49
의왕시	291	0	11	9	156	115
군포시	1256	64	2	5	1125	60
시흥시	6911	2791	1155	887	176	1902
오산시	44	3	1	0	30	10
남양주시	229	20	71	58	12	68
구리시	81	5	0	0	54	22
과천시	0	0	0	0	0	0
고양시 일산서구	0	0	0	0	0	0
고양시 일산동구	136	33	0	17	36	50
고양시 덕양구	42	0	2	33	0	7
안산시 단원구	9055	2179	2144	664	329	3739
안산시 상록구	687	54	24	421	79	109
동두천시	0	0	0	0	0	0
평택시	8068	2633	1789	227	476	2943
광명시	159	9	59	8	17	66
부천시 오정구	652	76	44	30	159	343
부천시 소사구	61	4	0	8	10	39
부천시 원미구	278	69	2	0	162	45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5)〉

안양시 동안구	164	28	64	3	56	13
안양시 만안구	361	20	108	11	122	100
의정부시	64	0	50	0	0	14
성남시 분당구	187	9	125	8	20	25
성남시 중원구	94	9	0	0	15	70
성남시 수정구	0	0	0	0	0	0
수원시 영통구	31	0	0	5	26	0
수원시 팔달구	13	0	8	0	0	5
수원시 권선구	307	155	14	53	84	1
수원시 장안구	102	0	0	98	4	0
세종시	1229	830	13	13	117	256
울주군	5840	1218	1607	1113	345	1557
북구	9908	786	6951	174	36	1961
동구	414	0	0	390	0	24
남구	2023	68	1015	330	2	608
중구	71	11	7	2	0	51
대덕구	2227	869	5	389	6	958
유성구	335	19	0	0	13	303
서구	57	0	0	0	57	0
중구	48	0	0	2	46	0
동구	9	4	0	4	0	1
광산구	5716	600	2522	130	155	2309
북구	257	13	154	1	0	89
남구	3	2	0	1	0	0
서구	115	0	67	0	0	48
동구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6)〉

웅진군	0	0	0	0	0	0
강화군	80	80	0	0	0	0
서구	3365	538	236	216	261	2114
계양구	338	28	114	6	54	136
부평구	805	131	249	26	57	342
남동구	6092	1555	899	1411	402	1825
연수구	546	128	0	9	16	393
남구	1289	362	269	99	131	428
동구	221	109	0	33	1	78
중구	28	27	0	0	0	1
달성군	6245	985	472	476	120	4192
달서구	9596	2237	1880	2127	1011	2341
수성구	0	0	0	0	0	0
북구	1279	147	640	23	42	427
남구	24	0	0	0	24	0
서구	617	77	103	58	118	261
동구	131	59	22	4	25	21
중구	2	0	1	1	0	0
기장군	3601	1091	744	203	18	1545
사상구	1740	449	75	402	48	766
수영구	5	0	0	0	5	0
연제구	1	0	0	0	0	1
강서구	2869	882	396	549	157	885
금정구	644	33	12	346	59	194
사하구	776	297	82	99	53	245
해운대구	173	5	18	102	24	24
북구	77	0	0	0	73	4
남구	83	0	41	0	28	14
동래구	18	1	3	0	7	7
부산진구	22	2	0	6	2	12
영도구	32	1	0	0	0	31
동구	4	0	4	0	0	0
서구	0	0	0	0	0	0
중구	0	0	0	0	0	0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7)〉

강동구	1	0	0	0	0	1
송파구	2	0	0	0	2	0
강남구	12	0	0	0	0	12
서초구	48	0	3	35	0	10
관악구	15	3	0	0	10	2
동작구	3	0	0	0	0	3
영등포구	136	20	16	23	8	69
금천구	178	85	1	20	18	54
구로구	229	6	26	32	11	154
강서구	11	1	1	0	0	9
양천구	18	0	0	0	15	3
마포구	0	0	0	0	0	0
서대문구	0	0	0	0	0	0
은평구	0	0	0	0	0	0
노원구	29	0	1	0	9	19
도봉구	79	0	0	0	73	6
강북구	0	0	0	0	0	0
성북구	1	0	0	0	0	1
중랑구	7	0	0	0	0	7
동대문구	34	4	1	5	0	24
광진구	12	0	0	7	0	5
성동구	56	3	7	15	0	31
용산구	6	0	0	0	0	6
중구	3	3	0	0	0	0
종로구	4	0	0	0	0	4

〈전국 시군구별 총 종사자 및 부문별 종사자수(8)〉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양중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박정환(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전략연구 2014-32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초생태계분석

글쓴이 · 김양중 · 박정환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5년 2월 28일 / 발행 · 2015년 2월 28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63(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978-89-6124-282-0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